

徐靈胎의 《醫學源流論》에 나타난 醫學思想에 대한 考察

김강·박경남·맹웅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f medical abstraction on *Yi Xue Yuan Liu Lun* (醫學源流論) of *Xu Ling Tai* (徐靈胎)

Kim Kang, Park Kyoung Nam, Maeng Woong Jae*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Xu Ling Tai (徐靈胎) was an outstanding medical practitioner in the early and middle part of the Cheong Dynasty of China (清代). He had learned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nd natural science from his childhood and read through books covering all sorts of fields, from medical science to hydraulics and literature. He was, in particular, one of leaders who represented the school of classicism that followed scriptures (尊經復古主義學派) in the field of medical science and his solid abstraction has had an affect on posterity's one. One of his masterpieces is *Yi Xue Yuan Liu Lun* (醫學源流論) among his books in the medical area.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Yi Xue Yuan Liu Lun, Xu Ling Tai,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 서론

“병을 분별한 후에 약을 논하라”¹⁾는 말은 清代 의학의 조류를 대변하는 말이다. 이 말은 치료에 있어 처방을 찾는 것 보다 환자를 관찰하고 질병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으로, 청대 의가 喻嘉言²⁾이 펼친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實事求

是’, ‘無微不至’의 정신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의학계가 당시 학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낸 중심 사상이었다. 고증학자들의 학문 방법은 증거를 요구하고 空談을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의학경전의 본래 면목을 깊이 연구하여 ‘好古’, ‘信古’ 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러한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徐靈胎이다³⁾.

서령태(徐靈胎: 1693~1771)는 청대의 저명한 의학가이자 문학가⁴⁾이다. 博學多才하고 근면하여 천문·수리·음

* 교신저자 : 맹웅재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63-850-6838

1) ‘識病然後議藥’. 이는 清代 醫家 喻嘉言의 저작인 《寓意草·先議病後用藥》중에 나오는 말이다. 그는 여기에서 ‘治病必先識病, 識病然後議藥, 藥者所以勝病者也.’라고 하여, 진료할 때 질병 자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喻嘉言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375.

2) 本名 喻昌, 字는 嘉言이며 江西 新建人이다. 明 萬曆 13년(1585)에 태어나 清 順治 15년(1658)까지 74세를 살았다.

清初 三大醫家 중 한 사람이다. 홍원식: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9, p.315.

喻嘉言은 徐靈胎와 더불어 尊經復古學派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醫學源流論·腎虛非陰證論》에 ‘近世性喻嘉言先生, 能知此義…….’라고 하여 喻嘉言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온다.

3) 홍원식: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9, pp.298~299.

4) 서령태의 문학성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의 수준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다. 그의 문학작품들은 後代 중국 문학계에서 계속 논의될 정도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악·시문 등 다방면에 능하였고, 黃老의 學과 易學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의학에 정밀하여 평생 동안 저술이 상당히 많았다⁵⁾. 그는 元氣를 중시하였고, 復古主義 尊經學派의 대표적인 의가로서 《內經》, 《傷寒論》 및 《神農本草經》을 추종했으며, 宋 이후의 의학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을 가했던 인물이었다⁶⁾. 그러면서도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후세의 장점을 취하여 청대 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령태의 여러 저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醫學源流論》이다. 《醫學源流論》은 서령태가 65세가 되던 乾隆⁷⁾ 22년(1757)에 撰한 의학서적⁸⁾으로, 자신의 수십 년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엮은 醫論書이다. 전체는 上·下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經絡臟腑·脈·病·方藥·治法·書論·古今의 大綱 아래, 99개의 단편적인 논문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 의학계의 현상과 폐단에 대해 지적하였고, 《內經》과 《傷寒論》 등의 경전 저작을 결합하여 의학의 각 방면에 대해 논술하였다. 이를 통해 잘못된 說을 바로잡고, 연원을 밝혔기에 《醫學源流論》이라 칭하였다. 각각의 논설은 비록 1000字를 넘지 않지만, 각 분야의 이치를 밝혀 놓았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세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변증론치에 대한 그의 의학 사상을 한층 더 깊이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의 광범위함도 볼 수 있고, 의학에의 깊은 조예 및 풍부한 임상경험이 실려 있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의학 저작이라 할 것이다⁹⁾.

이렇듯 《醫學源流論》은 서령태의 만년에 저술된 그의 대표작으로, 그의 의학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작이다¹⁰⁾. 이에 《醫學源流論》을 통해

서령태의 학술사상을 고찰해서 얻은 지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1. 徐靈胎의 生涯와 著作

1) 生涯

서령태의 본명은 大椿¹¹⁾이고 다른 이름은 大業¹²⁾, 字는 靈胎이며 晚號는 涇溪老人으로, 清代 江蘇省¹³⁾의 吳江縣 사람이다. 康熙¹⁴⁾ 32년(1693) 5월 15일에 태어나서 건륭 36년(1771) 12월 4일 북경에서 享年 79세로 죽었다. 건륭제가 두 번에 걸쳐 그를 불러들일 때 그의 字를 호칭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字로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만년에 涇溪 畫眉泉에서 은거하여 自號를 涇溪老人이라 하였다¹⁵⁾.

그는 명망 높은 가문의 후손으로,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왔다. 曾祖父는 儒生들의 대표로서 翰林院 檢討官¹⁶⁾을 역임하였다. 군사·농업·의술·점술·천문·지리 등 통하여 알지 못하는

11) 《莊子·內篇·逍遙游第一》에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八千歲爲秋’라 하여, 이후 ‘大椿’은 장수의 비유로 쓰였다.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서울, 1997.

이를 통해, 서령태의 이름을 지어준 祖父 역시 상당한 학식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老莊思想에 해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집안 배경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2) 大椿은 출생 시 祖父가 지어준 이름이고, 大業은 20세에 縣庠에 입학하면서 바꾼 이름이다.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p.403~404.

13) 중국의 동부 양쯔강(揚子江) 하류에 있는 省. 省都는 난징(南京)으로, 난징은 춘추전국시대에 吳의 도읍지였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4) 청의 4대 황제인 聖祖의 연호. 재위 기간은 1662년부터 1722년까지 임.

15) 최태희·윤창열: 《徐大椿의 生涯와 著書 및 醫學理論에 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1999년 12월.

16) 한(翰)은 깃털로 만든 붓, 임(林)은 모인다는 뜻으로서, 옛 중국에서 문필가가 모이는 장소를 翰林이라 하였다. 翰林院은 문장에 능한 선비, 학자, 醫卜術에 능한 사람, 한 가지 藝才에 뛰어난 사람들이 뽑혀 모인 곳이었다. 주로 詔書의 초안을 만들었으며, 천자에게 직속되어 있었으므로 점차 정치적으로 중용되는 수가 많았다. 하지만 清代에는 사서의 편찬이나 조서의 초안을 작성할 뿐이고, 전적으로 정치적 활동은 없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한림원은 과거합격자로서 명망을 갖춘 進士들이 처음으로 관직에 나갈 때 배치되는 기관으로서 관료는 이곳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매우 영예롭게 생각하였다. 임계순: 《清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134.

검도관이란 황제에게 경전과 역사 등을 강의하고, 함께 현실 정치에 적용하여 토론하는 論思를 맡아보는 직책을 말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있다. 그가 저술한 《涇溪道情》은 道情이라는 장르를 道教文學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한 작품으로 평가 되고 있다. <http://www.sanyapark.com/detail.asp?ID=981>.

또한 《樂府傳聲》은 明代 魏良輔 등의 희곡 演唱 양식을 계승하였으며, 당시 음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http://www.wenhuaacn.com/guoyue/liishi/01/49.htm>.

국내 연구 성과로는 金光永이 쓴 『徐大椿의 《樂府傳聲》 연구, 인문과학 제4집, 1998년 12월, pp.237-263』 등이 있다.

5) 최태희·윤창열: 《徐大椿의 生涯와 著書 및 醫學理論에 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1999년 12월.

6) 홍원식·윤창열: 《新編中國醫學史》, 주민출판사, 대전, 2004, p.334.

7) 淸의 6대 황제인 高宗의 연호. 재위 기간은 1736년부터 1795년까지 임.

8)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10.

9) 北京市衛生幹部進修學院中醫部: 《徐大椿醫學全集》,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p.158.

10) 前掲書, p.1.

바가 없었고, 《文體正偽》, 《醫略》 등 수십 권의 저술을 남겼다. 祖父인 徐鈞 역시 博學鴻詞科¹⁷⁾에 합격하여 翰林院 檢討官을 역임하였다. 그는 후에 《明史》¹⁸⁾를 纂修하였고, 《菊莊樂府》를 지어 詩文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父인 徐養浩는 州¹⁹⁾의 司馬²⁰⁾職을 역임하였으며, 임기를 마친 후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고 돌아와서 더욱 학문을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의 代에 이르자, 집안의 어른들은 그가 조상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문의 이름을 더욱 드높일 것을 희망하게 되었다²¹⁾.

서령태는 이러한 집안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어려서부터 뜻이 컸으며 기개가 남달랐다. 7세에 塾學²²⁾에 입학하였을 때부터 남다른 의지와 행동을 보였다고 하며, 14세에 八股文²³⁾을 학습할 때, ‘동기들보다 실력이 뛰어나서 선생님이 칭찬하였다’²⁴⁾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가 四書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관계 진출을 위해 科擧²⁵⁾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미 그 나이에 경전 연구와 理學²⁶⁾ 공부에도 매진하여 스스로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였다²⁷⁾.

18세가 되던 해부터 부친의 명을 받들어 水利에 관한 책을 열람하고 연구하여 그 요령을 익혔다. 32세가 되던 해에는 運河의 설계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38세가 되던 해에는 水利 공사의 감독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그가 45세가 되던 해에 重刊된 《吳江水考》의 序文을 작성하였으며, 70세 때에는 《水利策稿》를 직접 저술하는 등 水利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50세가 되던 해에는 그의 어머니가 眼疾에 걸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는데, 이런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손수 唱法에 관한 책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樂府傳馨》이다. 지극한 효심은 물론, 다방면에 걸쳐 다재다능했던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령태는 힘이 장사였을 뿐만 아니라 외모 역시 기개가 있었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부터 무예를 익혔는데, 그 힘이 대단하여 22세 무렵에는 무려 300斤이나 되는 巨石을 들어 올릴 수도 있었다고 한다²⁸⁾. 袁枚가 쓴 《小包山房文集·徐靈胎先生傳》에 보면 “키가 크고 이마가 넓으며, 목소리가 종소리 같았고 흰 수염이 웅장하여, 한눈에 기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²⁹⁾는 기록이 있다. 또한 임종 전 “陰陽 生死 出入의 이치를 논하면서 담소를 즐기다가 죽었다.”³⁰⁾는 기록으로 보아 그의 호탕했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서령태가 의학을 하게 된 동기는 그의 자서전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소박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의학을 배우게 된 것은, 셋째 동생이 瘡病을 앓자, 아버지께서 명의들을 두루 請하시어 매일 그들과 의학에 대하여 담론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또

17) 博學鴻詞란 학문에 박식하고 문장에도 웅대하다는 뜻으로, 文士를 선발하던 청나라 때 실시한 制科의 하나이다. 博學宏辭·詞學兼茂, 줄여서 博鴻이라고도 한다. 급제한 사람은 한림관으로 임명되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8) 明에 관한 기전체의 역사서. 총 336권. 중국 正史의 하나로, 淸의 張廷玉 등이 칙령을 받들어 편찬하였다. 《明史稿》를 원본으로 하여 1735년에 완성하였다. 목록 4권, 本紀 24권, 志 75권, 表 13권, 列傳 220권으로 되어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 지방행정구역. 청조는 명조의 지방 제도를 답습하여 전국을 18개의 행정 단위인 省으로 구획하였고, 省은 다시 府·州·縣으로 구획되었다. 가장 작은 행정구는 州와 縣이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州라고 하였다. 인구 약 20만 명인 縣이나 州가 모여 府가 되었고, 다시 7~13개 정도의 府가 모여 하나의 省을 이루었다. 임계순: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p.136~138.

20) 兵曹判書의 다른 이름.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서울, 1997.

21) 其曾祖爲諸生領袖, 授翰林院檢討, 兵農醫占, 天官地利, 無不通曉, 著有《文體正偽》, 《醫略》等書數十卷. 祖父學博學鴻詞科, 徵翰林院檢討, 纂修明史, 尤擅詞章, 著有《菊莊樂府》. 其父教授州司馬, 不就選而歸, 益耽於學. 因此迨至靈胎, 家族的長輩們則寄望於他, 希冀其能秉祖承宗, 光大家聲.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06.

22) ‘서당’의 뜻이다.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서울, 1997.

23) 明 중엽 이후 관리 등용 시험에 쓰이던 문체. 그 結句가 對句法에 의해 여덟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八股文’이라 하였다. 민중서림편집국: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서울, 1997. 결국, 八股文을 학습하였다는 것은 관료 등용을 위해 科擧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在同學中稍優, 師誦獎之.’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06.

25) 淸朝는 과거제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용하였다. 청조는 과거제를 통하여 능력 있고 장래성이 있는 漢人을 관료로 발탁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조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회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제의 운영을 통해 사대부들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청조는 이들이 관계에 진출하기 위하여 지옥과 같은 과거 준비에 얽매게 함으로써 청조에 불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중국 사회에 있어서 관리가 된다는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兩班家에서는 모두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임계순, 신서원, 서울, 2000, pp.159, 162.

26) 여기에서는 《道德經》, 《陰符經》을 의미한다.

27) 홍원식·윤장열: 《新編中國醫學史》, 주민출판사, 대전, 2004, p.333.

28)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04.

29) “長身廣頰, 音聲如鐘, 白鬚偉然, 一望而知爲奇男子.” 前掲書, p.412.

30) “從容議論陰陽生死出入之理, 談笑而逝.” 前掲書, p.412.

약을 손수 제조하면서 의학의 이치를 조금씩 깨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넷째와 다섯째 동생마저 연이어 병으로 죽게 되었고 이에 아버지께서는 슬퍼하시다가 병까지 얻게 되었으나, 의학을 공부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집안에 소장하고 있던 수십 종의 의서를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마침내 대의가 통하게 되었으니, 당시 의사들에게 질문하여 마땅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 이에 다시 근원과 흐름을 탐구하여 《內經》으로부터 元·明의 모든 책까지 널리 구하고 取하였다. 거의 만여 권의 책을 읽은 후에야 가슴에 실제로 얻는 것이 있었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다.”³¹⁾ 이렇듯 그는 溫故知新的의 사상으로 고금의 의서를 두루 섭렵하였으며, 이러한 성실함과 해박함을 바탕으로 훗날 시대를 대표하는 명의를 되었다.

淸初의 의학계는 여러 가지 說이 竝立하는 국면을 맞았는데, 이런 諸說을 융회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尊經學派가 출현하였다. 尊經學派는 仲景의 학문을 萬世醫學의 宗으로 삼아,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중경의 책을 읽은 연후에 각각의 학설을 연구하는 것을 正道로 여기고 張仲景를 醫聖으로 추종하는 학설 分派였다. 서령태는 이러한 尊經學派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內經》과 《傷寒論》 등의 고전을 추앙하여 理法을 세우고 諸家의 說을 널리 모았다. 그가 50여 년간 펼쳐 읽은 의학 책이 천여 권이고, 전체적으로 본 책이 만여 권에 이른다고 하니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있다. 袁枚의 《小包山房文集·徐靈胎先生傳》에 “진료를 할 때 마다 가려진 深部를 꿰뚫어 가슴 속 깊은 肺腑에서부터 호흡하게 하고 더불어 말을 할 수 있게 하니, 약을 쓰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 같았고 邪氣를 제거하는 것은 周亞夫³²⁾의 군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다.”³³⁾라고 하였으니 그의 의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진료를 하였으며, 더불어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저술로 남기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後日 그 의술의 정밀함은 널리 강남북에 알려졌고 마침내 청 조정에까지 도달하였다. 건륭 25년(1760)에 文華殿 大學士³⁴⁾ 蔣薄이 병이

들자 高宗이 海內의 名醫를 찾았는데, 刑部尙書³⁵⁾ 秦蕙田이 서령태를 推舉하여 詔勅에 의해 발탁되었고, 이듬해 봄에 入京하여 薄의 병을 진찰한 후 불치병임을 진단하였다. 이 때 그 의술의 뛰어난 점을 인정받고 太醫院의 供奉 벼슬에 임용되었으나, 사양하고 귀향하였다. 귀향 후 涇溪에 은거하여 晝眉泉에 築室하여 모학감(耄學龕)³⁶⁾이라 명하고 저술에 몰두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건륭 36년(1771) 황제가 다시 부름에 스스로 체력이 쇠함을 알아 아들인 徐燦를 거느리고 入京하였으나, 精力이 크게 약해져서 3일 만에 향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소식을 들은 건륭제가 매우 애통히 여겨 백금 100냥을 하사하고 儒林郎을 贈爵하였다³⁷⁾.

2) 著作

서령태의 저작은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특히 의학과 관련된 저술이 가장 많다³⁸⁾. 그의 이름으로 간행된 저작 중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모두 56종이며, 9종의 총서까지 합하면 모두 65종이다³⁹⁾.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학 저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難經經釋》은 서령태가 35세가 되던 雍正⁴⁰⁾ 5년(1727)에 간행되었는데, 《內經》의 기본이론으로 《難經》을 해석한 것이다. 주로 장부, 경락의 생리기능을 간단하게 밝히고, 後人의 주장으로 前人을 증명하는 입장을 배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¹⁾. 그는 “의학을 익히려면 반드시 먼저 經脈과 臟腑에 대해 밝아야 하기 때문에, 《難經經釋》을 지었다.”⁴²⁾고 하였다.

《神農本草經百種錄》은 1권으로, 서령태가 44세가 되던 건륭 원년(1736)에 撰하였다. 본초 三品 중에서 100종을 뽑아 經文을 나열하고 주치와 효능을 밝힌 것인데 상용하는 약이 많이 빠져있다. 범례에서 “약성을 밝게 변별하고 그 깊은 뜻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것까지 알게 하면 방약이 잘못 쓰이지

31) “余之習醫也，因第三弟患病，先君(父親)爲遍請名醫，余因日與講論，又藥皆親製，醫理稍通。既而四五兩弟又連年病卒，先君以悲悼得疾，醫藥之事無虛歲。家藏有醫書數十種，朝夕披覽，久而通其大義，質之時醫茫如也。乃更窮源及流，自《內經》以至元明諸書，廣求博采，幾(將近)萬餘卷，而後胸有實獲，不能已于言矣。” 前掲書，p.408.

32) 漢文帝 때 흉노가 대거 침입하자 細柳營에서 주둔했다가 흉노를 크게 물리친 장군. 후에 景帝 때 吳楚七國의 난을 진압하였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33) “每覘人疾，穿穴膏肓，能呼肺腑，與之作語，其用藥也，神施鬼沒，斬關奪隘，如周亞夫之軍從天而下。”

34) 황제 직속 최고 의관의 정무기관인 내각의 首長으로, 정1품 宰相이다. 임계순: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126.

35) 六部의 하나인 刑部의 首長, 종1품. 前掲書, p.126.

36) 耄: 늙을 모, 늙은이 모.; 龕: 탑 감, 감실 감.

37) 최태희·윤창열: 《徐大椿의 生涯와 著書 및 醫學理論에 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1999년 12월.

38)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10.

39) 前掲書, p.412.
물론 이 가운데에는 서령태의 저작이 아닌 것도 상당 수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한다.

40) 청의 5대 황제인 世宗의 연호. 재위 기간은 1723년부터 1735년까지 임.

41) 홍원식·윤창열: 《新編中國醫學史》, 주민출판사, 대전, 2004, p.333.

42) “謂學醫必先明經脈臟腑也，故作《難經經釋》。”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08.

않게 된다.” 43)고 하였다. 그는 “약성은 반드시 그 참된 것을 알아야 하므로, 《神農本草經百種錄》을 지었다.” 44)고 하였다.

명의 趙獻可⁴⁵⁾가 《醫貫》⁴⁶⁾을 지어 《薛氏醫案》⁴⁷⁾의 說을 밝혔고 呂晚邨이 다시 刻하였는데, 오로지 六味와 八味 두 처방으로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 하고자 하였다. 서령태는 이런 관행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49세가 되던 건륭 6년(1741)에 《醫貫砭》을 지어 그 說의 치우침을 駁正하였다. 그는 “醫道가 망가진 것은, 명의 薛立齋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呂晚邨이 趙獻可를 그대로 답습하여 六味와 八味 두 가지 처방으로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하려 하면서 후세에 끼친 영향이 끝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니, 《醫貫砭》을 지었다.” 48)고 하였다.

《醫學源流論》은 論書로서, 서령태가 65세가 되던 건륭 22년(1757)에 간행되었다. 經絡·臟腑·脈·病·方藥·治法·書論·古今 等 七門으로 나누어져 있고, 모두 99편의 論을 수록하고 있으며 주로 治病하는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그는 “병을 치료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 이치가 있는데, 후세에 들어 그 이치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醫學源流論》을 지었다.” 49)고 하였다.

《傷寒類方》은 서령태가 67세가 되던 건륭 24년(1759)에 간행되었다. 《傷寒論》의 방제를 桂枝·麻黃·葛根·柴胡·梔子·承氣·瀉心·白虎·五苓·四逆·理中·雜法

의 12類로 나누고 기타의 各方은 고루 나누어 그 아래에 배속시켰다. 이는 비교적 계통적으로 《傷寒論》을 처방에 따라 證을 분류, 정리한 서적이다. 그는 “《傷寒論》은 뒤섞여 어지럽고, 注釋家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說을 만들어 定論이 없어졌기 때문에, 《傷寒類方》을 지었다.” 50)고 하였다.

《蘭臺軌范》은 서령태가 72세가 되던 건륭 29년(1764)에 간행되었다. 모두 8권으로, 第一卷은 통치방, 第二卷에서 第七卷까지는 36種難病, 卷八卷은 부인 및 소아이다. 각각의 病마다 먼저 《內經》, 《金匱》, 《傷寒》, 《病源》, 《千金》, 《外臺》 등의 관련 있는 方論을 인용하였고, 간혹 宋代 이후 사람의 說도 채택했으며, 끝에는 약간의 附方이 실려 있다. 이 책은 尊古의이고 간략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요즘 의사들은 병의 근원을 고찰하지도 않고, 병명을 분별하지도 않으며, 經方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병리에 대해서도 밝지 못하기 때문에, 《蘭臺軌范》을 지었다.” 51)고 하였다.

《慎疾芻言》 역시 論書로서, 서령태가 75세가 되던 건륭 32년(1767)에 간행되었다. 補劑·用藥·中風·咳嗽·老人·婦人·小兒·外科·制劑 등 論문 19편을 수록하였고, 주로 각종의 事實을 辨駁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천명하였다. 그는 “의학의 전승이 끊어지고, 邪說이 도처에서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해악이 극렬해졌기 때문에, 《慎疾芻言》을 지었다.” 52)고 하였다.

그는 만년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널리 古人의 書를 취한 후 새로 저술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잡다한 것을 모아 그 요점을 취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치우친 것을 바로 잡는다’ 53)는 사상을 바탕으로 數餘卷 以上の 저작을 남겼는데, 各各의 名稱을 보면 《內經詮釋》, 《涇溪脈學》, 《脈訣啓悟注釋》, 《傷寒約編》, 《六經病解》, 《舌鑑總論》, 《女科醫案》, 《雜病源》, 《舌鑑辨色》, 《圖說醫學抉微》, 《藥性本義》, 《醫學詳解》, 《涇溪醫案》 등이 54).

이 외에도 《道德經注》, 《陰符經注》, 《涇溪道情》, 《樂府傳聲》, 《水利策稿》, 《恩紀略》 등의 非醫學著作도 상당수 있다. 《道德經注》는 그가 20년

43) “辨明藥性 闡發義蘊 使讀者深識其所以然 因此彼彼 方藥不致誤用.” 홍원식·윤창달: 《新編中國醫學史》, 주민출판사, 대전, 2004, p.333.

44) “謂藥性必當知其真也, 故作《神農本草經百種錄》.”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08.

45) 趙獻可의 字는 養葵이고 自號를 醫巫閭子라 했으며, 勤縣(浙江 寧波)人이다. 治病할 때 薛己의 成法에 집착하여 八味, 六味로 모든 병을 치료하려 하여 後代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저작으로 《醫貫》, 《內經抄》, 《素問注》, 《經絡考》, 《正脈論》 등이 있다. 홍원식·윤창달: 《新編中國醫學史》, 주민출판사, 대전, 2004, p.262.

46) 趙獻可의 대표작으로, 주로 한의학 기초이론에 대하여 천명했는데 특히 命門相火의 작용을 강조하여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前揭書, p.262.

47) 薛己의 의학저작을 모두 함하여 한데 이룬 것을 말한다. 《外科心法》, 《女科撮要》, 《癘瘍機要》, 《正體類要》, 《家居醫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薛己의 字는 新甫이고, 號는 立齋이며 吳縣人이다. 正德嘉靖間(1506~1566)에 御醫 및 太醫院使를 역임했다. 그 의학사상의 특징은 眞陰眞陽의 부족을 강조한 것으로, 後日 趙獻可, 張介賓 등이 이 說을 따라 ‘溫補派’를 형성하였다. 前揭書, p.261.

48) “謂醫道之壞, 壞于明之薛立齋, 而呂氏刻趙氏, 專以六味八味兩方治天下之病, 貽無窮也, 故作《醫貫砭》.”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09.

49) “謂治病必有其所以然之理, 而後世失其傳也, 故作《醫學源流論》.” 前揭書, p.408.

50) “謂《傷寒論》顛倒錯亂, 注家各私其說, 而無定論也, 故作《傷寒類方》.” 前揭書, p.408.

51) “謂時醫不考病源, 不辨病名, 不知經方, 不明法度也, 故作《蘭臺軌范》.” 前揭書, p.409.

52) “謂醫學絕傳, 邪說互出, 殺人之禍烈也, 故作《慎疾芻言》.” 前揭書, p.409.

53) 節其冗, 取其要, 補其缺, 正其偏.

54) 홍원식·윤창달: 《新編中國醫學史》, 주민출판사, 대전, 2004, p.334.

이상 《道德經》⁵⁵⁾을 연구한 끝에 저술한 저작이며, 《陰符經注》는 평생 자신이 즐겨 읽었던 《陰符經》⁵⁶⁾에 주석을 단 책이다. 《涇溪道情》은 서령태의 창작 문학 작품으로, 道情⁵⁷⁾의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운문 체제를 이루었다. 그의 작품은 민요의 정취를 살려 표현이 통속적이고 생동감이 넘쳐서 새로운 중국 운문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 받는다. 《樂府傳聲》은 眼疾에 걸려 우울해 하시는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서령태가 손수 지은 음률 책으로, 四呼五音⁵⁸⁾의 창법을 기록하였으며 音高節明⁵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水利策稿》는 정부 수리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의 저작으로서, 수리분야에 대한 그의 계획과 생각이 담겨있으며, 《恩紀略》은 건륭 26년 황제의 命을 받고 入京하면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들 저작은 총서 형태로 재간행 되기도 하였다. 《徐氏醫書六種》⁶⁰⁾, 《徐靈胎醫學全書十六種》⁶¹⁾, 《徐氏醫書八種》⁶²⁾, 《徐靈胎十二種全集》⁶³⁾, 《醫學三書

合刻》⁶⁴⁾, 《徐靈胎醫略六書》⁶⁵⁾, 《徐靈胎醫書三十二種》⁶⁶⁾ 등이 그것으로, 대부분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 이후에 출간되었다. 그는 매사에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여 이렇듯 풍부하고 가치 있는 著述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이 모든 저작이 서령태의 저술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서령태가 생존했던 1771년까지 간행된 저작은 총 9종⁶⁷⁾이며, 서거 직후 그의 아들에 의해 간행된 자서전⁶⁸⁾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水利策稿》를 합하면 모두 11종이다. 여기에 그의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자서전에 저술하였고 언급되어 있는 저작인 《樂府傳聲》과 《涇溪道情》, 《恩紀略》⁶⁹⁾, 그리고 각종 고종⁷⁰⁾을 통해 입증된 《涇溪醫案》⁷¹⁾과 《徐靈胎評外科正宗》⁷²⁾, 《管見集》⁷³⁾까지 총 17종만이 서령태의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머지 著作들은 그의 제자들이 지었거나, 서령태의 이름을 탁명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이 잘못 기록된 것이거나 한 것으로 서령태의 저작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⁷⁴⁾.

서령태의 저술이 확실한 이상의 저작들은 대부분 그의 생존 시기에 간행되었고⁷⁵⁾, 自序가 있는 특징이 있다⁷⁶⁾. 이를 통해, 그는 저술을 자신의 생각과 사상으로

55) 老子가 지은 것으로 전하는 저서명으로, 《老子》 또는 《道德經》이라고도 한다. 약 5,000자, 상하 2편으로 되어 있다. BC 4세기부터 漢初에 이르기까지의 도가 사상의 집적으로 보인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56) 道교 경전. 《黃帝陰符經》이라고도 한다. 秘書三種(《黃石公素書》, 《諸葛亮心書》, 《黃帝陰符經》) 중 하나로서, 상편은 修煉成仙의 도를, 중편은 富國安民의 법을, 하편은 強兵戰勝의 기술을 논하고 있다.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희망과 행동이 모름지기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되어야만 비로소 '하늘과 인간이 함께 發하고 온갖 변화가 그 기분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냉정한 관찰과 분석으로 時機를 파악할 것을 주장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도가 사상을 위주로 하면서도 縱橫家 및 兵家의 사상도 나타나고 있다. 문장은 간결하며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57) 道情이란 清代에 널리 유행한 散曲(元·明대의 가곡) 계통의 민간가요를 일컫는다. 대부분 한적한 삶과 安貧樂道를 노래하고 있어 '道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58) 音韻學 名詞. 漢語 音韻은 口脣의 형태를 근간으로 하는데, 開口呼·齊齒呼·合口呼·撮口呼가 있으며 이 4가지를 합해 四呼라고 한다. 또한 발음 부위를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喉音·舌音·齒音·牙音·唇音이 그것으로 이를 五音이라고 하였다. 漢語大辭典編輯委員會: 《漢語大辭典》, 漢語大辭典出版社, 上海, 2001.

59) 音의 높이가 알맞고 분명함.

60) 初刻 年代未詳, 大略 乾隆間. 《難經經釋》, 《神農本草經百種錄》, 《醫貫砭》, 《醫學源流論》, 《傷寒類方》, 《蘭臺軌范》 합본.

61) 初刻 咸豐5年(1855). 《徐氏醫書六種》에 《慎疾芻言》, 《涇溪醫案》, 《內經詮釋》, 《涇溪脈學》, 《脈訣啓悟注釋》, 《六經病解》, 《傷寒約編》, 《舌鑑總論》, 《雜病源》, 《女科醫案》 합본.

62) 初刻 咸豐7年(1857). 《徐氏醫書六種》에 《慎疾芻言》, 《涇溪醫案》 합본.

63) 初刻 同治3年(1864). 《徐氏醫書八種》에 《道德經注》, 《陰符經注》, 《涇溪道情》, 《樂府傳聲》 합본.

64) 初刻 光緒元年(1875). 《慎疾芻言》, 《涇溪醫案》, 《經驗方》 합본.

65) 初刻 光緒29年(1903). 《內經詮釋》, 《脈訣啓悟注釋》, 《傷寒約編》, 《雜病源》, 《藥性切用》, 《女科指要》, 《經絡診視圖》, 《舌鑿圖》 합본.

66) 初刻 民國(간행연도 미상). 《徐靈胎醫學全書十六種》에 《道德經注》, 《陰符經注》, 《涇溪道情》, 《樂府傳聲》, 《藥性切用》, 《女科指要》, 《經絡診視圖》, 《證治指南》, 《古方集解》, 《種子要方》, 《中風大法》, 《六經脈診》, 《舌胎圖說》, 《藥性詩解》, 《葉案批謬》, 《湯引總義》 합본.

67) 간행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難經經釋》(1727년 刊), 《神農本草經百種錄》(1736년 刊), 《醫貫砭》(1741년 刊), 《醫學源流論》(1757년 刊), 《傷寒類方》(1759년 刊), 《道德經注》+《陰符經注》(1760년 刊, 두 가지 저작을 합하여 간행함), 《蘭臺軌范》(1764년 刊), 《慎疾芻言》(1767년 刊), 《徐批臨證指南醫案》(1768년 刊)을 말한다.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10.

68) 《自序》. 서령태의 서거 다음 해인 건륭 37년(1772)에 《征士涇溪府君自序》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 안에 《水利策稿》가 포함되어 있다. 前掲書, p.412.

69) 세 저작 모두 간행연도 미상.

70) 《清史稿》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1) 咸豐 5年(1855) 刊.

72) 咸豐 10年(1860) 刊.

73) 간행연도 미상.

74) 前掲書, pp.412~413.

75) 《涇溪醫案》(1855년 刊), 《徐靈胎評外科正宗》(1860년 刊) 제외. 《樂府傳聲》, 《涇溪道情》, 《恩紀略》, 《管見集》은 간행연도 미상이므로 예외.

76) 《涇溪醫案》은 王孟英이 編한 것으로 그의 序가 있고, 《

전달하는 중요 매체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던 그의 성격도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제일 처음 간행되었던 《難經經釋》이 그가 35세 때 간행된 것이고, 이후 간행된 《醫學源流論》, 《傷寒類方》, 《蘭臺軌范》 등 그의 대표 저작이 6,70대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 그의 저술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총결하고 숙고를 거듭한 역작이었음도 가늠할 수 있다.

2. 《醫學源流論》 概括

모든 문화와 사상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시대 상황과 독립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전하는 사상은 없는 것이다. 의학사상도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서령태의 의학사상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서령태의 생존 시기는 이민족 왕조 시대였으면서도 중국 역사상 유래 없는 전성시대였고, 이후 다시 쇠퇴기로 접어드는 변화의 시기였다. 즉 안정과 변화가 공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의학 사상은 시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령태의 생존 당시 및 전후의 시대 상황과 의학계의 조류를 살펴보고, 《醫學源流論》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 분석한 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학사상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時代狀況

(1) 社會 文化的 狀況

청은 이민족이었던 滿洲族이 漢族을 정복하고 세운 왕조였다. 그러나 統治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淸朝가 수립될 당시 漢族의 인구수는 약 1억 명에 달하였으나 滿洲族은 약 3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수에 있어 절대 소수⁷⁷⁾였고, 찬란한 문화를 꽃 피웠던 漢族에 비해 제대로 된 자신들만의 문자도 갖고 있지 않는 등⁷⁸⁾ 문화적으로도 열등했다. 이러한 이유로 淸朝는

《管見集》은 序가 없으며, 《恩紀略》은 確認할 수 없었다. 나머지 著作은 모두 自序가 있다.

77) 임계순: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115.

78) 오늘날 만주어라고 불리는 것은 1599년 청나라 태조의 창안으로 몽골글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無圈點滿洲文字라고 하였는데, 1632년 ‘ㅇ’나 ‘.’을 더하여 개량한 만주 문자가 達海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며, 전자와 구별하여 有圈點滿洲文字라고 하였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중국을 정복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강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漢文化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유화정책을 채택하고 만주족의 특성과 지도력을 보존하는 독특한 통치정책을 구사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었다⁷⁹⁾. 그들은 정치적 지도 이념으로 유교를 채택하였고, 漢人 관료를 우대, 등용하였으며, 과거제를 실시하고 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⁸⁰⁾. 그러나 反淸思想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탄압하였다⁸¹⁾.

(2) 學問 思想的 狀況

청 조정은 儒學, 그 가운데서도 宋代의 程頤 형제와 朱熹가 정립한 新儒學⁸²⁾을 官學으로 받아들였다. 신유학은 地主와 佃戶⁸³⁾ 사이의 엄격한 상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 규범과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학문체계였다. 강희제는 신유학의 이 같은 이론이 백성을 통치하고 사회적인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官學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민족 왕조인 청조의 등장은 明末淸初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자기비판의 계기를 제공했다. 청초기의 지식인들은 空理空論에 치우친 신유학을 비판

79) 임계순: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94.

80) 前掲書, pp.96~104.

81) 淸朝는 滿·漢을 표면적으로라도 통합하기 위하여 만주족의 풍속인 薙髮을 漢族에게 강요하는 薙髮令을 내렸으나 한족이 이를 따르지 않자, 저항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다. 또한 법전 《大清律例》를 제정하여 모반과 대역죄를 十惡의 으뜸으로 하여 엄하게 처벌하였는데, 주된 처벌은 凌遲處斬 후 梟示하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정치적 목적의 모임을 절대 만들 수 없었고, 반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개인의 무기 소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 재산은 몰수, 가족은 국가의 노예로 삼았다. 또한 文人들의 結社를 금지하였고, 만주족의 통치를 위협하는 모든 서적을 금지하였으며 수 차례 文字獄을 일으켰다. 서적에 대한 검열 뿐만 아니라 인쇄물이나 문서에서 간접적인 反淸의 표현만 보어도 즉시 저자를 조사하여 筆禍 사건을 일으켰다. 前掲書, pp.104~114.

82) 宋代에 일어난 학술·사상의 총칭. 宋學·道學이라고도 한다. 특히 그 시대에 발전한 형이상학을 가리킬 때가 많다. 11세기 北宋의 대표적인 학자 周敦頤·程顥·程頤·張載, 12세기 南宋의 朱熹 등의 姓을 따서 周程張朱學, 또는 그 출생지의 이름을 따서 濂洛關閩學이라고도 하나, 단적으로 말해서 주희의 朱子學으로 대표된다. 송대의 학문이 記誦 학문화 되자, 신유학은 이 科擧 학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일어나 經·義의 本義로 복귀를 지향하면서 차츰 性命의 학문을 결실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불교와 도교로부터 취할 것은 취하고, 儒家의 주체성에서 3教를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유교철학, 理氣心性의 형이상학을 완성하였다. 그 목적은 모든 인간이 理를 규명하고 性을 다하여 聖인이 될 수 있는 실천윤리를 방법론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道의 이념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83) 宋 때부터 中華民國시대에 걸쳐, 농업경영에서 일반화한 소작농가의 통칭.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하고 經世致用을 통해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과 민족주의적 정치관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清初 實學의 전개는, 明末에 드러난 주자학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전개되었다. 그 필연적 산물이 宋儒의 理主氣從의 체계에서 氣主理從의 체계로의 전환 즉, 理學 및 心學에서 氣學으로의 전환이며, 이 때 등장한 것이 經世致用學派⁸⁴⁾였다. 이들은 지나간 일을 기록함으로써 이후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어지러운 사회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잘못된 현실을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明末 황제들의 전제와 부패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淸朝의 독재에 대해서도 文筆을 통하여 대항하였다. 그러나 明·淸 교체기에는 그와 같은 비판이나 대항이 가능했지만 이후 사상 통제가 강화되고 탄압이 계속되자 자신의 안전만을 위하여 전전공공하게 되었고⁸⁵⁾, 이후 세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경제치용의 이론이 사상적 탄압으로 인해 현실 정치에 반영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오로지 고전의 내용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訓詁考證學만이 발전하게 되었다. 考證學派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증거 제일주의였으며, 따라서 그 연구범위는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증거 없는 추측으로 판단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의 증거만이 아니라 많은 증거를 나열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오래된 증거일수록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經에 나오는 사실로 다른 모든 傳이나 記⁸⁶⁾를 비판했고, 漢·唐의 증거로 宋·明을 비판하였다. 반면 傳이나 記로 經을 비판할 수 없었고, 宋·明의 증거로 漢·唐을 비판할 수 없었다.

고증학은 당시의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어렵다고 멀리하였던 고전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고, 僞書나 가치 없는 서적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었으며, 소외되었던 학문들을 하나의 당당한 전문 학술 분야로 부각시킴으로써 학문의 전체적인 발전에 공헌하게 되었다. 동시에 처음에는 어려웠던 고전이 읽으면 읽을수록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르는 사이에 향학심을 키우게 되었고, 증거 하나 하나를 차분히 모아 연구하는 풍토를

정착시킴으로써 학자들이 기만하거나 부화뇌동하지 않고 겸허하게 처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⁸⁷⁾. 강희제에서 건륭제까지 여러 번 ‘文字의 獄’⁸⁸⁾이 일어나자 사대부들은 화를 피하기 위해 모두 고증하는 학문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이런 학술 풍토는 건륭·嘉慶⁸⁹⁾ 시대에 이르러 최고조에 다다랐다.

더불어 편찬사업은 청의 황제들이 漢族의 학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방면에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漢人 학자들을 편찬사업에서 각별히 우대되었고, 따라서 오로지 서적의 편찬사업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건륭 시대에는 《四庫全書》⁹⁰⁾가 편찬되었는데, 편찬의 목적은 사실 다른 데 있었다. 이 도서의 편찬을 기회로 遺書를 대규모로 수집하여 排滿思想을 근절시키고자 한 것이다. 편찬 기간 10년 동안, 그 전후로 없애 버린 서적이 모두 583종 13982권이었던⁹¹⁾⁹²⁾. 또한 청의 통치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는 史書, 지방지, 전기 소설, 희곡잡문 등을 禁書로 조치하거나 소각 또는 침삭하였다⁹³⁾.

(3) 醫學的 狀況

경학과 복고주의적 학풍은 의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학에서도 의학경전 본래 면목을 窮究하여, 金元以來의 각가의 학설에서 벗어나 곧바로 옛 聖

87) 前掲書, pp.241~242.

88) 청대 강희·옹정·건륭 연간 (1662~1795)에 일어난 筆禍 사건. 청이 한족의 사상·전통과는 다른 만주인 왕조였기 때문이며, 당시 한족에게 팽배한 攘夷思想을 꺾으려는 청의 노력 때문이다. 옹정제는 《大義覺迷錄》을 저술하여 청, 즉 만주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할 정도였다. 필화 사건의 예로는, 강희 시대인 1711년 저술된 《南山集》에 明의 연호를 사용하여 一族 모두 사형된 戴名世 사건, 옹정 시대인 26년 鄉試에 출제된 ‘維民所止’라는 글 속에 옹정제를 참수하려는 의도를 풍자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一族도 투옥된 查嗣庭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런 사건은 건륭 시대에 가장 많았고, 가경 이후에는 고증학의 융성 등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89) 淸의 7대 황제인 仁宗의 연호. 재위 기간은 1796년부터 1820년까지 임.

90) 淸나라 때 편집된 총서. 乾隆帝가 1741년에 천하의 書를 수집한다는 詔를 내려 총 3458종, 7만 9582권을 수록하였으며, 經·史·子·集의 4부로 분류 편집되었다. 1781년에는 《四庫全書》의 첫 한 벌이 완성되었고, 그 후 궁정에 4벌, 민간에 열람시키는 3벌 등 7벌이 만들어졌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91) 홍원식: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9, pp.293~295.

92) 청조가 사전이나 사서 등 각종 서적을 편찬하면서 없애 버린 책은 무려 8천여 종 71만여 권에 이르며, 일본에 소실된 도서 목록이 보존되어 있다. 임계순: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110.

93) 前掲書, p.110.

84) 明末淸初의 東林學派와 그들의 학설에 영향을 받은 黃宗羲·顧炎武·王夫之 등이 주창하였다. 明 중기 이후 유학이 정치적·사회적 혼란 속에서 객관적 실증성을 떠난 주관적 경향으로 흐르게 되자 그에 반대하여 이 주장이 일어났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85) 임계순: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p.231~232.

86) ‘傳’은 ‘經’과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로서, 經의 주석, 또는 해설을 가리키며, ‘記’는 주로 事蹟 또는 풍경을 적은 산문체의 글을 말한다. 經이 변하지 않는 法式과 도리를 기록한 것인 반면, 傳이나 記는 그 보다 아랫 단계의 글로 평가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옛센스 국어사전》.

人의 心法을 탐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성행하였다. 이들을 崇古派 또는 古派라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喻嘉言, 柯韻伯, 徐靈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內經》이나 《難經》에 대하여 주석을 달거나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傷寒論》에 대한 정론이 가장 많았다⁹⁴⁾95).

傷寒 뿐 아니라 六淫의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심화되어 風溫, 春溫, 暑溫, 伏暑, 濕溫, 冬溫, 秋燥 등이 폭넓게 연구되면서 溫病學이 성립하였으며, 특히 燥濕에 관한 연구가 깊이 진행되어 外感六淫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청대 의학의 가장 큰 성과는 溫病學의 정립에 있다. 이는 이 시기에 급성 전염성 열병과 유행성 질환이 수차례 걸쳐 유행하였고, 이러한 질환에 대한 상한의 치법이 상당히 미흡하였다는 점이 그러한 연구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傷寒學派와 溫病學派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서로 반대 입장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 발전적인 논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고증학의 성행에 따라 의학에서도 고전의 연구방법에서 錯簡重訂을 주장하고 경전을 재구성하거나 변증시치의 실용성에 따라 재편집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를 통해 이론적 요소를 배제하고 실제 병증의 현황을 중시하는 변증시치가 정착 되었다. 그리하여 비로소 六經辨證, 衛氣營血辨證, 三焦辨證, 病邪辨證, 臟腑辨證 등이 형성 되었다.

한편 諸病에 대해 命門이나 脾 등의 특정 장부를 인체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一理 강조의 경향성’에서 탈피하여, 장부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더욱 중시하는 객관적 탐구가 이루어졌다.

方劑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저술과 새롭고 탁월한 처방들이 많이 발명되었는데 이는 모두 이 시대의 병리관의 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상한학파의

古方에 대한 연구와 반복되는 경험의 축적 결과 古方의 이해는 날로 그 심도를 더해갔으며, 온병학파는 새로운 병리관에 입각한 새로운 처방들을 발명했고, 어혈 및 출혈병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어 새로운 逐瘀方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脾胃나 肝風 등의 각종 장부적 질환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약물의 구성과 활용이 이루어졌다⁹⁶⁾.

이러한 청대 의학의 전체적인 성격은 淸代의 국정의 학교과서인 《醫宗金鑑》에서 가장 명료하게 나타난다. 《醫宗金鑑》은 詔勅에 의해 1742년에 완성된 淸代醫學의 임상 표준서였다. 모두 15종, 90권으로 구성되어 당시까지 東洋醫學의 임상종합의서 중 가장 완비되고 간단명료한 책이었다⁹⁷⁾. 특징적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관련된 부분이 앞 1/3을 차지하여 당시 의학계가 얼마나 《傷寒論》을 중시하였는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三綱定立과 錯簡重正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책은 諸家の 주석들 중에 비교적 합리적이고 명료한 해석만을 채택하였고, 의심되는 부분의 錯簡을 주장하고 그것을 제위치로 환원시키고자하는 訂正을 수행하는 등, 당시 최고조에 달해있던 考證學과 실증적 학풍의 영향을 여러 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4) 經濟的 狀況

서령태는 강희 32년(1693)에 生하여 건륭 36년(1771)에 卒하였다. 이 시기는 강희, 옹정, 건륭 황제로 이어지는 약 134년간의 청의 전성기였으며, 그 중에서도 강희제 재위 후반 39년과 옹정제 재위 13년, 그리고 건륭제 재위 전반 39년을 합한 총 91년에 달하는, 소위 ‘康乾盛世’ 혹은 ‘康雍乾時代’ 라고 불리는 태평성대 시기였다. 이와 같이 淸朝가 장기간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황제의 전제권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국내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 문화적 업적이 축적되었으며, 외적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⁹⁸⁾. 그러나 전성기의 화려한 번영 속에 내재된 많은 모순들이 서서히 노출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소수 민족 왕조로서 다수 중국인을 지배하기 위해 고안한 통치제도는 오히려 행정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었고, 관리들의 부패는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심해 갔다. 경제 구조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 또한 근본적으로

94) 홍원식: 《中國醫史學》,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9, p.299.

95) 한의학도 기존과는 달리 《內經》중심의 이론적인 탐구에 몰두하기 보다는, 《傷寒論》 중심의 실천적 의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趙獻可의 主靜主義의인 ‘命門說’ 類의 관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각골 쇠신하여 ‘實事’에로 그 눈을 돌린 것이다. 이러한 조류는 《醫宗金鑑》에 《內經》의 주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대해서는 상세한 주석을 달아놓고 연구한 점, 그리고 주석서 및 연구서의 수에 있어서 《內經》에 비해 《傷寒》의 연구서가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 등에서 볼 수 있다. 요컨대, 청대의 사상가들에게 程, 朱를 대신한 기의 철학과 實事求是의 정신이 虛無寂靜에서 벗어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신 모델을 제공한 근거가 되었다면, 청대의 의가들에게는 仲景이야말로 溫補의 末流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생동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 一言一句도 실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중경서의 장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시기였던 것이다. 최의권: 《淸代醫學의 性格과 學術的 動向에 관한 考察》, 현국학회 논문집, 1993, p.22.

96) 최의권: 《淸代醫學의 性格과 學術的 動向에 관한 考察》, 현국학회 논문집, 1993, p.111.

97) 《두산세계대백과사전》.

98) 임계순: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274.

제거하지 못하여 토지 검병, 경작지 부족, 비효율적인 관개치수 사업으로 인한 재정 고갈, 물가 폭등이 야기되었다⁹⁹⁾.

康乾盛世의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옹정제 시기에 폐지된 人頭稅¹⁰⁰⁾, 그리고 淸朝의 농업 진흥정책에 따른 경작지의 증가와 곡물 생산량의 증가 및 신작물의 보급¹⁰¹⁾ 등은 필연적으로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¹⁰²⁾. 청대 전기의 인구 증가는 사회의 생산력을 회복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건륭 중엽에 이르자 상황이 달라졌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경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인구의 증가 속도가 농업 경제 발전 속도를 추월하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¹⁰³⁾. 농경 기술과 토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할 경우에 경제는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건륭제의 후기에 이르러서는 君臣 모두가 創業 당시의 청신했던 기풍이 사라지고 점차 재산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사치 풍조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 같은 풍조는 결과적으로 강희·옹정·건륭의 번영 시대에서 점차 쇠퇴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었다¹⁰⁴⁾. 서령태의 생존 말년인 18세기 후반에 백성들은 굶주렸고,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처자식을 파는 것 외에 苛斂誅求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살아갈 방법은 없었다¹⁰⁵⁾. 결국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과의 격차가 벌어져,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地理的 狀況

한편, 直隸·山東·江蘇 세 지역은 황하와 양자강 두 유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국 전역 중 자연재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빈번했던 곳이다. 그 중에서도 건륭~道光¹⁰⁶⁾ 시기 江蘇省의 재해는 順治¹⁰⁷⁾~옹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直隸·山東에 이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水災는 旱災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⁰⁸⁾. 따라서 농업 진흥 정책을 썼던 淸朝로서는, 민심 안정과 생산성 증가, 그리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治水事業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노력한 치수사업의 성공으로 경지면적이 확대되었고,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¹⁰⁹⁾. 이러한 지리적, 시대적 배경 때문에, 서령태의 가문과 자신 역시 治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⁰⁾.

2) 《醫學源流論》의 構造 및 性格

《醫學源流論》은 서령태의 만년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때 간행되었다. 68세가 되던 건륭 25년(1760)에 名醫의 칭호를 받고 황제의 부름을 받아 入京하였으니, 本著를 저술할 당시는 이미 자신의 학문적 완성을 이루어낸 시기이자, 《醫學源流論》 자체 역시 서령태 자신의 의학사상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하겠다.

《醫學源流論》은 上·下 2卷, 經絡臟腑·脈·病·方藥·治法·書論·古今 등 7門, 99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門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醫學源流論》卷上

〈經絡臟腑 9篇〉: 생리 병리적인 인체 구조에 대한 논술이 표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기의 중요성에 대한 논술이 주를 이룬다. 원기의 중요성과 病位와 病因 감별의 중요성, 上下位를 중심으로 한 인체 구조에 대한 설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脈 3篇〉: 진단 도구로서의 맥진에 대한 서령태의 견해가 담겨 있다. 맥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胃氣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며, 맥진은 여러 진단 방법 중 하나이므로 진단의 절대조건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病 16篇〉: 병리관에 대한 논술이다. 이 門에서는 각종 질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나타난다. 그 치료의 관건은 허실과 병인을 잘 살펴 보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인데 특히 溫補藥의 남용을 주의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역시 원기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99) 前掲書, p.275.

100) 前掲書, p.314.

101) 前掲書, p.302.

102) 강희 4년(1685) 1억 1천만 명이었던 인구는 건륭 30년(1765) 2억 7500만 명에 이르렀고, 1790년에 이미 3억 명을 넘었다. 前掲書, p.315.

103) 前掲書, p.314.

104) 김희영: 《이야기 중국사》, 권3, 청아출판사, 서울, 1986, p.290.

105) 柏楊 著, 김영수 옮김: 《맨 얼굴의 중국사》, 권5, 창해, 서울, 2005, p.178.

106) 청의 8대 황제인 宣宗의 연호. 재위 기간은 1821년부터 1850년까지 임.

107) 청의 3대 황제인 世祖의 연호. 재위 기간은 1644년부터 1661년까지 임.

108) 姜利權: 《乾隆~道光時期(1736~1850) 江蘇省의 災害와 淸朝의 荒政》, 중국사연구 제2집, 1997년 8월, p.44.

109) 임계순: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서울, 2000, p.186.

110) 서령태의 父인 徐養浩는 水利學에 정통하여 《吳中水利志》를 지었으며, 서령태 역시 水利學에 일가견이 있어 젊어서는 각종 수리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고, 70세에는 《水利策稿》를 저술했다. 李雲: 《中醫人名詞典》, 國際文化出版公司, 北京, 1988, p.731.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徐靈胎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05.

〈方藥 24篇〉: 본초 방제에 대한 논술이다. 처방은 病症에 꼭 맞아야 하는데, 약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밀하고 정교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약은 병에 따라서 그 劑型을 맞게 해야 하며, 약을 달이고 복용하는 것도 알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醫學源流論》卷下

〈治法 24篇〉: 치료 원리 및 방법에 대한 논술이다. 몇 개의 특정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법과 일반적인 질환들의 치료 접근법, 그리고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病과 症의 감별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질환에 대한 소극적 치료뿐만 아니라 이에 대비되는 적극적 개념으로 예방에 대해 논술하였다.

〈書論 13篇〉: 고급 의서 평론 및 各科別 치료원칙에 대한 논술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 서령태는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을 의학의 경전으로 평가하였고, 《脈經》과 《千金要方》, 《外臺秘要》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작으로, 《活人書》를 후세 의학저작 중 최고로 꼽았다. 이어 婦科, 痘科, 幼科, 瘍科 각각의 치료 요점과 祝由科, 獸醫科에 대해 언급하였다.

〈古今 10篇〉: 의사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논술 및 기타 내용이다. 의학에는 체계와 精粹가 있으므로 의사된 도리를 바로 알아 專念으로 익혀서 베풀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환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各 門의 논설에는 해당 門에서 표방하는 각론적인 내용과 더불어 총론 성격의 내용이 더 많이 보이는데, ‘某病은 某藥으로 치료한다’와 같은 즉답식의 내용은 거의 없고 원론적이고 윤리적이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서술 방법 역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 과거 聖인들이 하던 바를 따르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식의 형식이 자주 보인다. 이로써 그는 하나의 ‘法’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사회가 안정기를 지나 침체와 혼란기로 접어들어 갔고 있었으며, 의료계 역시 잘못된 관행들이 횡행하여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던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결국 復古主義 尊經學派였던 서령태는 의학의 원류를 소급하여 ‘醫道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혼란스러운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醫學源流論》의 序文에, ‘의학은 小道이고 賤工이기 때문에 大人의 학문은 아니지만,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大人들을 치료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¹¹¹⁾고 한 점이나,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 비유된다……. 누가 良醫之法이

어진 宰相과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¹¹²⁾라고 하여, 의학의 수준을 단순 의료 차원이 아니라 ‘救世의 큰 학문’이라는 차원으로 끌어 올린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의료를 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지만, 儒學者로서의 사상 역시 느낄 수 있다.

3. 《醫學源流論》에 나타난 徐靈胎의 醫學思想

이제 《醫學源流論》 본문 내용을 통해 서령태의 의학사상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1) 古法을 重視

(1) 正名思想¹¹³⁾을 통한 古法 중시

당시 학술 사상의 배경에는 고증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계에서는 송고학파가 득세하고 있었다. 서령태는 이러한 송고학과 중에서도 대표격인 인물이었으며, 尊經復古主義思想으로 《內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金匱要略》 등 宋代 이전의 저작과 의가를 중시하였다. ‘古聖人の 말과 法은 일단 옳다’는 논리가 상당하며, 이러한 내용은 《醫學源流論》 곳곳에서 보인다.

“옛 聖인이 병의 이름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본질을 가리켰으니, 中風이라고 일렀다면 곧 그 병이 風에 속함을 알 수 있다.”¹¹⁴⁾ 〈中風論〉中.

古人の 命名은 병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수반

111) ‘醫, 小道也, 精義也, 重任也, 賤工也. 古者大人之學, 將以治天下國家, 使無一夫不被其澤, 甚者天地而萬物育, 斯學者之極功也. 若夫日救一人, 月治數病, 顧此則失彼, 雖數十里之近, 不能兼及. 況乎不可治者, 又非能起死者而使之生, 其道不已小乎?……. 人之所系, 莫大乎生死. 王公大人, 聖賢豪傑, 可以旋轉乾坤, 而不能保無疾病之患. 一有疾病, 不得不請之醫者, 而生殺唯命矣. 夫一人系天下之重, 而天下所系之人, 其命又懸於醫者, 下而一國一家所係之人更無論矣, 其任不亦重乎?’ 《徐大椿醫學全集》, 北京市衛生幹部進修學院中醫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p.159.

112) ‘治身猶治天下也……. 誰謂良醫之法, 不可通於良相也.’ 〈醫道通治道論〉中.

113) 儒家の 正名主義는 유가학설의 중심적 사상이다. 正名이란 각자의 지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으로, 天子, 諸侯, 大夫, 庶人 모두가 자기의 직책에 맞게 모든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君臣과 父子가 각자 자기의 명분을 지키고 침범하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는 확립된다는 생각이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14) 凡古聖定病之名, 必指其實. 名曰中風, 則其病屬風可知.

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름 불리던 병명은 그 병명만 잘 연구해도 병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이다.

“의학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神農本草經》의 글자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구하고 仲景의 모든 처방을 참고한다면, 聖人の 정미로운 이치를 스스로 깊이 깨달아, 자신이 처방을 만들 때에도 역시 반드시 기묘한 생각이 있게 되고 病機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 천하에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이 없게 될 것이다.” 115) <藥石性同用異論> 中.

《神農本草經》과 중경의 처방은 성인의 저작으로, 글자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으므로 이를 잘 깨달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病情을 잘 알아서 古方과 합치된다면 고방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증상이 있다면 古法에 의거하여 가감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모두 마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방의 법에 의거하여 고방에서 사용하는 약으로 취사선택하되, 반드시 증상에 대응하지 않는 약이 한 가지도 없도록 해서 古人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면, 반드시 투약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16) <古方加減論> 中.

“聖인이 처방을 만들 때에는 藥理의 本原을 추론하고 藥性의 全能을 알며, 기미의 從逆을 관찰하고 장부의 好惡을 살펴서 君臣의 配偶가 합치되도록 하고, 病源을 탐색하며 경락을 추구하였으니, 그 생각이 깊고 그 뜻이 정미로우 약의 가짓수가 서너 가지를 넘지 않아도 그 쓰임과 변화가 끝이 없었다. 성인의 지혜는 진실로 천지와 같으니,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117) <方劑古今論> 中.

“이와 같이 考察하면, 자연히 말은 반드시 聖經에 근본을 두고 치료는 반드시 古法을 따르게 되면, 학문에는 淵源이 있어 스승에게서 학문을

이어받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118) <考試醫學論> 中.

그는 여기에서 옛 성인의 命名이나 처방, 그리고 의학 논리에는 본질을 꿰뚫는 정확함이 있었으므로, 그 法을 따른다면 오류가 없고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다고 보았다. 성인의 지혜는 천지와 같이 넓고 큰 것이어서, 세상 모든 진리와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옛 의학 서적을 ‘聖經’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고, 그 속에 나타난 논리에 한 자 한 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강조했다. 이 외에 <難經論>, <傷寒論>, <金匱論>, <脈經論>, <千金方外臺論> 등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와 같이 古法이 중요하고 옳다는 내용이다.

(2) 현실 비판을 통한 古法 중시

한편 서령태는 현실 비판을 통해 고법을 존중하는 화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즉, 古法과 같지 않은 당시 의료계의 잘못된 현실을 지적하고 아쉬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古法을 추종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여러 번 나온다.

“애석하도대! 古方은 얼마나 조심스러운데, 지금의 처방은 얼마나 가벼이 쓰이는가!” 119) <方劑古今論> 中.

“그 功用이라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시험하여 안 것이므로 그 치료하는 병은 더욱 넓어졌으나, 모두 《神農本草經》이 純正하고 眞確한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宋代의 사람이 ‘《神農本草經》의 약재를 사용하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없으나, 陶弘景이 더한 약재를 사용하면 모두 뚜렷한 약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후세에 추가된 약재는 더욱 더 신빙성이 부족하다.” 120) <本草古今論> 中.

오늘날의 지식은, 지식의 내용도 정확하지 않아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115) 學者必將《神農本草》字字求其精義之所在，而參以仲景諸方，則聖人之精理自能洞曉。而己之立方，亦必有奇思妙想，深入病機，而天下無難治之症也。

116) 能識病情與古方合者，則全用之。有別症，則據古法加減之。如不盡合，則依古方之法，將古方所用之藥，而去取損益之，必使無一藥之不對症，自然不倍於古人之法，而所投必有神效矣。

117) 聖人之劑方也，推藥理之本原，識藥性之專能，察氣味之從逆，審臟腑之好惡，合君臣之配偶，而又探索病源，推求經絡，其思遠，其義精，味不過三四，而其用變化不窮。聖人之智，真與天地同體，非人之心思所能及也。

118) 如此考察，自然言必本于聖經，治必遵乎古法，學有淵源，而師承不絕矣。

119) 嗟! 嗟! 古之方何其嚴，今之方何其易。

120) 至其功用，則亦後人試驗而知之，故其所治之病益廣。然皆不若《神農本草》之純正眞確，故宋人有云：用《神農》之品無不效，而弘景所增已不甚效，若後世所增之藥則尤有不足憑者。

“오늘날 침 치료를 시술하는데 있어 뚜렷하게 잃어버린 것이 열 가지¹²¹⁾가 있고, 또 본래의 정미로움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¹²²⁾ <鍼灸失傳論> 中.

청대 鍼灸學은 ‘鍼灸學의 쇠퇴와 수난기’ 라고 불린다. 특히 1822년 淸, 太醫院에서 鍼灸科를 폐지시킨 이후 이런 양상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저술활동도 부진하여 명대의 <鍼灸大成>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鍼灸學의 주요 서적으로 남아 있었다¹²³⁾. 서령태는 이를 아쉬워하여 <鍼灸失傳論>을 지어 당시 침구학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는데, 이 역시 古人의 시대와 비교하여 부족했던 당시의 의료계를 꼬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사람¹²⁴⁾은 중경과 비교하였을 때 萬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을 중경과 함께 칭한다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¹²⁵⁾ <四大家論> 中.

“古人들은 먼저 그 病을 확실하게 살피고서 그 후에 알맞은 처방으로 치료하였으나,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病이라고 말하는 것은 古人들이 일컬었던 그 病이 아니다.”¹²⁶⁾ <邪說陷溺論> 中.

여기에서 그는 ‘古聖人들은 특유의 명철함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으나 後代로 오면서 그 진정한 이치가 전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오늘날의 醫道는 많이 혼탁해지고 그 정미로움을 잃어 버렸다. 오늘날 사람들의 행위와 지식은 오류가 많고 헛된 것이다’ 면서 당시 상황을 질타하고 다시 옛 법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령태는 현실 비판을 통해 古法을 중시하였으며, <內經>과 <傷寒論>을 위시한 古法, 그 중에서도 仲景의 法을 특히 더 추종하였다. 그의 古法 추종은 당시 일반적으로 유행하던 復古主義 尊經學派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학문

121) 經非經而穴非穴, 此一失也. 每病指定幾穴, 此二失也. 不知五輸穴, 此三失也. 不知補瀉之法, 此四失也. 不問氣之至與不至, 此五失也. 不知鍼之深淺, 此六失也. 失鍼之所應, 此七失也. 不用取血, 此八失也. 不傳九變十二節, 此九失也. 不用九鍼, 此十失也.

122) 今之爲鍼者, 其顯然之失有十, 而精微尙不與焉.

123) 최의권: <清代醫學의 성격과 學術의 動向에 관한 考察>, 현곡학회 논문집, 1993, p.78.

124) 劉河間, 李東垣, 朱丹溪.

125) 三子之于仲景, 未能望見萬一, 乃踴而與之並稱, 豈非絕倒?

126) 先審其病之確然, 然後以其方治之. 若今人之所謂某病, 非古人之所謂某病也.

적 원류가 古法에 있지 않으면 불신하였고, 새로운 것에 대한 해석 역시 고법에 의하였다. 이것으로 서령태를 대표적인 復古尊經學派 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합리적인 古法 중시

그러나 그의 복고 성향은 절대 맹목적 보수 성향은 아니었으니, 항상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여 ‘靜中動’ 하는 의학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양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을 수 있다’ 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망령된 것이다.”¹²⁷⁾ <元氣存亡說> 中.

서령태의 논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기존 상당수의 한의학 서적에서는 이런 식의 언급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왔다. 물론 상고시대 성인을 동경하며 양생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었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기 못한 것이었기에 그는 이런 생각을 철저히 배격했다.

“精은 곧 腎中之 脂膏로서 오래 존재하는 것이 있고, 날마다 生하는 것이 있다……. 다만 반드시 浮火가 動하지 않고, 음양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 옳을 따름이다. 만약 浮火가 매일 動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制止하면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精이라는 물건은 욕심이 動하면 生하고 動하지 않으면 生하지 않으며, 스스로 動하지 않을 수 있으면 유익한 것이고 억지로 제지하는 경우에는 해가 되며, 과용하면 衰渴하게 되니, 자연에 맡기어 억지로 힘쓰지 않는 것이 바로 精을 보전하는 방법이다.”¹²⁸⁾ <腎藏精論> 中.

이러한 그의 생각은 ‘精은 지극히 보배로운 것으로서, 태어날 때 이미 몇 홉에 해당하는 한정된 분량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性交를 통한 射精마저도 좋지 않은 것이며, 欲情을 끊어 욕망을 절제하여야 한다’ 는 식으로 정론화되어 있던 기존 한의학의 논리와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精의 관리에 있어 단순한 금욕이나 방종이 아닌 중용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비교적 최근 의학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復古主義者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127) 養生者之言曰: 天下之人, 皆可以無死. 斯言妄也.

128) 夫精, 卽腎中之脂膏也. 有長存者, 有日生者……. 但必浮火不動, 陰陽相守則可耳. 若浮火日動而強制之, 則反有害……. 故精之爲物, 慾動則生, 不動則不生. 能自然不動則有益, 強制則有害, 過用則衰渴. 任其自然, 而無所勉強, 則保精之法也.

맹목적 추종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며, 검증되지 않은 채 답습되어 온 기존의 주장을 논리적인 고찰을 통해 반박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精에 관한 그의 사상은 현대인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脈을 진단하면 곧 어떤 병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사람의 생사는 맥을 살피면 먼저 알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혹 經에 따라 傳變하여 流動함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 맥을 보고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는 없다.”¹²⁹⁾ <診脈決死生論> 中.

“병을 치료할 때, 진맥으로써 기혈의 성쇠와 풍한서습의 침습을 알 수 있다……. 맥은 (단지) 기혈이 나타나는 단서일 뿐이니……. 어찌 善惡을 알 수 있으며, 貧窮과 榮達이 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생명의 길고 짧음과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 역시 모두 맥으로만 징험할 수 없다. 하물며 다른 것은 어떠하겠는가?”¹³⁰⁾ <太素脈¹³¹⁾論> 中.

脈診은 한의학 진단법의 하나로서 四診 중에 하나인 切診 중에서도 일부분일 뿐이나, 그간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診脈만으로 환자의 생사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병이 어떤 병이며 병위가 어디인지 감별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사람의 善惡과 貧富를 알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반박하는 그의 주장은, 단순히 맥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¹³²⁾ 望·聞·問·切 모두를 참고하

여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鬼神은 풍한서습의 사기와 같은 것일 뿐이다. 衛氣가 허하면 寒邪를 받고, 營氣가 허하면 熱邪를 받고, 神氣가 허하면 鬼神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神은 陽에 속하므로 陽이 쇠약해지면 鬼神이 붙게 된다. <內經>에 ‘五臟의 병은 五色의 鬼로 나타난다’¹³³⁾고 하였고, <難經>에서는 ‘脫陽者는 鬼신을 본다’고 하였다……. 神氣가 휴손 되어 鬼신이 붙게 되는 것은, 정기가 허하여 풍한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寒邪를 치료하려면 陽을 강장시키고, 熱邪를 치료하려면 陰을 양육시키며, 鬼신을 치료하려면 그 神氣를 充盈시킬 따름인 것이다.”¹³⁴⁾ <病有鬼神論> 中.

‘鬼신은 풍한서습의 사기와 같은 것일 뿐’이라는 지적은, 鬼病을 痰飲이나 瘀血 계통의 질환으로 치부해 온 기존 논리¹³⁵⁾에 비하면 매우 합리적이다. 게다가 그 병의 기전을 설명하고 치료법까지 제시한 것은, 치료 가능성 여부를 떠나 그 논리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사람이 병에 걸린다면 어찌 일일이 運氣에 맞추어 생각할 수 있으며, 일 년 중에 사람이 단 한 번도 다른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內經>에서도 歲氣의 勝復을 치료할 때에는 병의 원인을 나누지 않고 병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치료하였다. 예를 들면 風溼이 내부에 침범하면 辛涼한 약으로 치료하니 이처럼 육기에는 모두 쉽고 간편한 치료법이 있다. 또 말하기를, “모든 歲氣의 勝復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때에는 寒한 것은 熱하게 하고, 熱한 것은 寒하게 하며, 溫한 것은 清하게 하고, 清한 것은 溫하게 하여야 하니, 그 해의 운기를 생각하지 말고 치료하라”고 하였으니, 어찌 치료가 한결같을 수 있겠는가.”¹³⁶⁾ <司天運氣論> 中.

觀互考, 以究其生剋順逆之理, 而後吉凶可憑.’ <脈經論> 中.

133) <內經> 중에서 원문을 찾을 수 없음.

134) 夫鬼神, 猶風寒暑濕之邪耳. 衛氣虛, 則受寒. 營氣虛, 則受熱. 神氣虛, 則受鬼. 蓋人之神屬陽, 陽衰則鬼憑之. <內經>有五臟之病, 則現五色之鬼. <難經>云: 脫陽者見鬼……. 若神氣有虧, 則鬼神得而憑之, 猶之風寒之能傷人也. 故治寒者, 壯其陽. 治熱者, 養其陰. 治鬼者, 充其神而已.

135) <醫學入門·雜病>, <痰類·癲狂>에 ‘鬼신처럼 보지도 못한 것에 대해 망령되어 말한다면 邪祟症이니, 그것은 痰에 의한 것이다(妄言未見, 如神鬼, 邪祟由來, 痰作殃.)’ 라고 하였다.

136) 至于人之得病, 則豈能一一與之盡合? 一歲之中, 不許有一人

129) 至云診脈則可以知何病, 又云人之死生無不能先知, 則又非也……. 或有依經傳變, 流動無常, 不可執一時之脈而定其是非者.

130) 診脈以之治病, 其血氣之盛衰, 及風寒暑濕之中人, 可驗而知也……. 夫脈乃氣血之見端……. 若善惡已不可知, 窮通則與脈何與?……. 卽壽夭智愚, 亦不能皆驗, 況其他乎?

131) <太素脈法>: 작자 미상. 唐末 有樵리는 사람이 산 속 동굴에서 이 책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진맥을 통해 사람의 貴賤과 吉凶을 진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왕을 진단하면 신하의 夭壽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진단하면 아들의 貴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주를 이룬다. <四庫全書總目·子部十三·醫家類一>에 ‘<太素脈法>은 치료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의학 서적이랄 할 수 없으므로, <術數家>편에 수록한다’고 하였다. 清 永瑢 等 撰: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出版, 北京, 1965, pp.856, 951.

132) 맥은 다만 기혈의 성쇠와 寒熱 및 邪氣가 어느 경락 어느 장부로 흘러가는지 파악 하는 것이므로, 현재 나타나는 증상과 함께 고찰하여 生剋順逆의 이치를 따져 본 다음에 그것에 따라 氣血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脈之爲道, 不過驗其血氣之盛衰寒熱, 及邪氣之流在何經何藏, 與所現之症, 參

운기는 ‘天人相應’이라는 全一觀念의 기초 위에서 이룩된 하나의 공식으로,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인체의 질병이나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설이다. 비록 《素問》의 運氣七篇에서 그 체계가 완성되었고宋代 이후의 많은 의가들¹³⁷⁾이 추종하여 성행하였다고는 하나, 그 연원이 확실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경향성만을 가지고 있어 맹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¹³⁸⁾. 당시 이런 풍조가 만연하여 환자의 상태는 살피지 않고 運氣만 따져 처방하는 경우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자, 여기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를 두고 그는 世間에서 흔히 말하는 운기를 耳食之學¹³⁹⁾이라 하였다. 이 역시 맹목적인 추종이나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宋人の 책으로서, 능히 《傷寒論》을 밝게 밝힌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傷寒論》의 의미를 파악하여 쉽게 깨닫게 하므로, 仲景보다 공이 큰 것은 《活人書》가 제일이다…….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저작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책을 읽는다면, 서로 복잡하게 뒤섞여있는 病情에 임한다해도 治法을 하나로 정할 수 있다.”¹⁴⁰⁾ <活人書論> 中.

서령태는 古法을 중시한 사람이었기에, 후세에 쓰인 의학 저작 중 칭찬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醫學源流論·書論》 중 칭찬을 아끼지 않은 저작이 있으니 바로 여기서 언급된 《活人書》이다. 비록 후대에 쓰

인 책이지만, 그 내용이 古法에 비추어도 어긋남이 없고 타당하였기에 극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령태는 古法을 매우 중시하여, 후세 의가의 언급보다 古人의 논리를 훨씬 더 존중하고 신뢰하였다.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金匱要略》등 소위 聖人の 저작에 의거된 논리가 아니면 따르지 않았고, 시간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혼탁해진 후세의 醫道를 아쉬워했다. 이는 고증학, 훈고학이 성행했던 청대의 학문 조류로서 일반적인 것이라 볼 수도 있으나, 그 정도나 수준 면에서 그의 복고성향은 당시 일반 복고론자 중에서 단연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¹⁴¹⁾. 그러나 그의 복고성향은 절대 맹목적 추종은 아니었다. 기본적인 古法은 반드시 따르되, 완고한 古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과감히 비판하고 재해석하거나 버렸다. 반면, 후세의 저작이나 논리이지만 그 내용에 타당성이 충분하면 取하였다. 물론 그러한 任意用志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서령태는 古法을 매우 중시했으면서도 능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溫故知新 하는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라 볼 수 있다.

2) 元氣를 重視

서령태는 사람의 원기를 중요시하여 원기와 인체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이 고찰하였으며, 원기를 지키는 것이 의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으로 꼽았다. 《醫學源流論》에서 제일 처음 논한 것이 <元氣存亡論> 인 것을 보아도, 그가 원기를 얼마나 중시하였는지 알 수 있다. 《醫學源流論》 본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원기의 중요성이며, 그의 사상의 대부분은 원기 중시를 위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생명을 받을 때에 이미 定分이라는 것이 있는데, 定分이라는 것은 元氣를 말하는 것이다……. 병을 진단하여 생사를 결정하는 자는 병의 경중을 보지 말고 원기의 存亡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백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을 것이다.”¹⁴²⁾ <元氣存亡論> 中.

“만약 元陽이 한번 動하면 元氣가 잃어지게 될 것이다.”¹⁴³⁾ <陰陽升降論> 中.

生他病乎? 故《內經》治歲氣勝復, 亦不分所以得病之因. 總之, 見病治病, 如風淫內于, 則治以辛涼, 六氣皆有簡便易守之法. 又云: 治諸勝復, 寒者熱之, 熱者寒之, 溫者清之, 清者溫之, 無問其數, 以平爲期. 何等劃一.

137) 金元四大家, 虞搏, 李梴, 張介賓, 汪機, 喻昌, 吳唐 等.

138) 漢代에도 언급된 바가 없고, 魏晉南北朝에도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 王冰이 지어 《素問》속에 假託하여 補入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김봉집 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12기: 《原論必本》, 경희대학교 출판국, 서울, 1992, p.68.

139) 耳食: 귀로 먹는다 뜻으로, 남의 말을 귀로만 듣고 넘겨짚어 그대로 믿어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옛센스 국어사전>.

‘남의 말을 훔쳐 듣거나 또는 우연히 선대의 옛 책을 보고 나서 몇 마디 말을 간략히 기억하고 나서 스스로 그 깊은 뜻을 얻었다 믿고 큰 소리로 못 사람을 선동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道聽途說이 곧 이것이다. 통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司天運氣가 바로 耳食之學이다.’ <司天運氣論> 中.

그는 여기에서 運氣의 의미나 역할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는 알지 못한 채 도식화되어 응용되던 운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140) 宋人之書, 能發明《傷寒論》, 使人有所執持而易曉, 大有功於仲景者, 《活人書》爲第一……. 足以繼往開來者乎?……. 若能參究此書, 則任病情之錯綜反覆, 而治法乃歸一定.

141) 홍원식: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9, p.326.

142) 當其受生之時, 已有定分焉. 所謂定分者, 元氣也……. 診病決死生者, 不視病之輕重, 而視元氣之存亡, 則百不失一矣.

“사람이 죽는 것은 대개 원기의 존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병을 앓는 자의 원기가 이미 상했다면 이는 곧 위태로운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144) <一臟一腑先絕論> 中.

“병이 이미 나왔는데도 오래지 않아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은, 사기가 비록 제거되었지만 그 사람의 원기가 병과 함께 없어져서, 일시적으로 비록 약간 편안한 것 같았지만 眞氣가 다시 연속되지 못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145) <病有不愈不死雖愈必死論> 中.

또한 원기의 손상을 우려하여 약을 정확하며 순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원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모두 삼가 보호함이 마땅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약을 가벼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46) <元氣存亡論> 中.

“옛 속담에 ‘약을 먹이지 않으면 中醫는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소심한 치료법 보다는 나은 것이다……. 만약 평이하고 輕淺하여 이익은 있으나 손해가 없는 처방을 선택하여 준비하였다가 쓰면, 작은 잘못이 있어도 역시害는 없고, 병에 대해 놀라운 功이 있으니 이는 中醫 이상 되는 것이다……. 또한 평범한 것 같으나 때로 큰 잘못이 나타나는 경우의 약도 있으니, 몰라서는 안 된다……. 약성이 매우 약한 약에도 역시 깊은 뜻이 있으니, 이것 역시 마땅히 삼가야 할 것이다……. 비록 약성이 輕한 약을 쓸 때에도 깊은 뜻이 있으니, 언제나 삼가야 할 것이다.” 147) <輕藥愈病論> 中.

“그러므로 비록 감초나 인삼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害가 되니, 모두 독약의 종류인 것이다……. 초목의 치우친 성질로 장부의 치우친 면을 공벌

하는 것이니, 반드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 많은 처방으로 바로 잡은 이후에야, 몸을 망치고 생명을 손상시키는 우환이 없게 될 것이다.” 148) <用藥如用兵論> 中.

약이라는 것은 補劑, 瀉劑를 막론하고 毒이기 때문에, 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毒을 쓰는 것과 같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을 남용하면 원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약을 복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이한 질병이 생기는 것은, 싸워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이한 재앙이 생기는 것과 같다.” 149) <用藥如用兵論> 中.

“약과 몸의 상태가 맞으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오래 복용하면 반드시 風痺, 陰癰 등의 질병을 얻게 되니, 모르는 사이에 약의 해로움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사람을 해치는 말로서, 진실로 논하기에 부족하다.” 150) <補藥可加通融論> 中.

“세상에는 간교한 의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어 한 번에 효과를 보고자 하면서 사람의 생사는 돌아보지 않으니, 이 때 사용하는 처방을 刮劑라고 한다. 刮劑라는 것은 강력한 약으로 사기를 분쇄하는 것이다. 사기가 사람에게 적중하면 일시에 그 사기를 물리칠 수 없으니, 반드시 조금씩 消托하여야 모두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하루 만에 효과를 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猛厲한 약을 사용하여 사기와 싸우게 하고 혹은 峻補하는 약을 사용하여 사기를 막는다. 약이 猛厲하면 사기는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고 정기가 손상되는 것이며, 약이 峻補하면 정기가 급작스럽게 발동하여 사기가 안에 숨어있는 것이니,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나 약력이 다하면 사기가 다시 와서 원기가 크게 무너질 것이다.” 151) <刮劑論> 中.

143) 若元陽一動, 卽元氣漓矣.

144) 人之死, 大約因元氣存亡而決. 故患病者, 元氣而傷, 卽變危殆.

145) 更有病已愈, 而不久必死者, 蓋邪氣雖去, 而其人元氣與病俱亡, 一時雖若粗安, 眞氣不可復續.

146) 故人之身, 無處不宜謹護, 而藥不可輕試也.

147) 古諺有不服藥爲中醫之說……. 此過于小心之法也……. 則莫若擇平易輕淺, 有益無損之方, 以備酌用, 小誤亦無害, 對病有奇功, 此則不止于中醫矣……. 又有其藥似平常, 而竟有大誤者, 不可不知……. 雖極淺之藥, 而亦有深義存焉. 此又所宜慎也.

148) 故雖甘草人參, 誤用致害, 皆毒藥之類也……. 以草木偏性, 攻臟腑之偏勝, 必能知彼知己, 多方以制之, 而後無喪身殞命之憂.

149) 好服食者, 必生奇疾, 猶之好戰勝者, 必有奇殃.

150) 其氣體合宜者, 一時取效, 久之必得風痺陰癰等疾, 隱受其害, 雖死不悔. 此等害人之說, 固不足論.

151) 世有好醫, 利人之財, 取效於一時, 不顧人之生死者, 謂之刮劑. 刮劑者, 以重藥奪載邪氣也. 夫邪之中人, 不能使之一時卽出, 必漸漸消托而後盡焉. 今欲一日見效, 勢必用猛厲之藥與邪相爭, 或用峻補之藥遏抑邪氣. 藥猛厲則邪氣暫伏, 而正亦傷. 藥峻補則正氣驟發, 而邪內陷. 一時似乎有效, 及至藥力盡而邪

輕淺한 약을 투약했을 때에도 원기의 손상이 우려되는데, 하물며 嚴重한 약을 투약했을 때에는 어떠하겠는가! 여기서 서령태가 강조한 내용은 오늘날의 의료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항생제의 남용,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오용, 스테로이드의 과용 등은 이미 그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이다. 일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고자 사용했던 이런 劑들은, 결국 그의 말대로 원기를 크게 손상시켜서 질병의 치료는 고사하고 약제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50여 년 전에 언급된 그의 지적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원기를 중시한다는 것이 溫熱滋膩한 補劑를 복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분별한 補劑의 남용을 경계하였으니,

“요즘 사람들은 언뜻 중풍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바로 인삼이나 숙지황, 부자, 육계 등의 純補溫熱한 약을 사용하니, 그렇게 하면 장차 風과 火와 痰氣의 이동을 돕는 것이니, 병이 輕한 자는 重하게 되고 병이 重한 자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마땅히 그 사기를 급히 구축하여 정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¹⁵²⁾ <中風論> 中.

“요사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가장 심한 것은, 큰 병을 앓고 난 후 사기가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는데 病氣가 어느 부위를 손상시켰는지는 살피지 않고, 바로 부자나 육계, 숙지황, 맥문동, 인삼, 백출, 오미자, 오수유 類의 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기가 원기와 서로 병합하여 모든 약이 효과가 없게 되어 죽게 된다.”¹⁵³⁾ <病情傳變論> 中.

“外患을 치료하는 것은 攻勝으로써 하고……. 內傷을 치료하는 것은 養勝으로써 한다.”¹⁵⁴⁾ <醫道通治道論> 中.

라고 하여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맹목적인 溫補를 경계하였으며, 원기를 보존하는 것이 補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변증시치를 통한 瀉法에서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원기 중시

復來, 元氣已大壞矣.

152) 今人一見中風之症, 卽用人蔘熟地附子肉桂等純補溫熱之品, 將風火痰氣, 盡行補往, 輕者變重, 重者卽死……. 當急驅其邪, 以衛其正.

153) 近日害人最深者, 大病之後, 邪未全退, 又不察病氣所傷何處, 卽用附子肉桂熟地麥冬人蔘白朮五味肉之類……. 邪氣與元氣相併, 諸藥無效而死.

154) 治外患者以功攻勝……. 治內傷者以養勝.

와 관련된 그의 또 다른 의학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정확한 변증을 통한 主方主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

원기는 단전 혹은 명문에서 비롯하며, 五臟에서 發하고 五臟에서 推動되어 전신 각 부위의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된다. 생명이 연계된 것은 모두 오직 원기에 의존하며, 원기는 陰陽開闢, 呼吸出入, 機體와 外界 交換의 원동력이 된다. 원기가 왕성하면 생기가 강하고, 원기가 약하면 생기가 쇠하며, 원기가 끊어지면 생기는 없어진다. 따라서 환자의 원기 손상 여부를 살피는 것은 의사가 진료를 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결국 원기는 사람의 人性과 天命,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결정하고 그 盛衰存亡은 실제로 사람의 생로병사의 관건이 되지만, 보존되지 않으므로, 시시각각 원기를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한열과 攻補가 적절하지 않으면, 실한 것은 더 실하게 하고 허한 것은 더 허하게 하여 반드시 한 臟에 큰 해를 입히게 된다. 사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기가 이어지지 못하여 원기가 붙어 있을 곳이 없어 상하게 되므로, 사람의 몸은 삼가고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없어 약을 가벼이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서령태가 제시한 원기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사람의 생로병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원기이므로, 원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째이다. 둘째로는 개인이 평상시에 원기를 보양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할 때 마땅히 매순간마다 원기를 돌보아 보호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 진단상의 의의는 병을 진찰하고 생사를 결정할 때 원기의 존망을 중요시 했다는 것이고, 그 치료 상의 의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할 때 원기가 상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¹⁵⁵⁾. 이는 한의학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것이다.

3) 主方主藥을 強調

앞서 원기를 중시하는 서령태의 사상을 고찰하면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치료 과정 중에 원기가 보호되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는 진단 과정에서 병과 증을 구분하고 병과 증의 관계를 확립하여, 辨病과 辨證의 결합을 통해 치료율 제고를 모색하였다.

155) 《徐靈胎醫學全書》,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414.

“症을 총괄하여 病이라 한다.” 156) <病症不同論> 中.

“사람이 고통 받는 바를 病이라 하고, 病에 이르게 하는 것을 因이라 한다.” 157) <病因同別論> 中.

“症狀이라는 것은 病이 발현한 것이다.” 158) <脈症與病相反論> 中.

“대개 하나의 병에는 반드시 여러 증상이 있기 마련이니, 병은 같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가 있고, 증상은 같으나 병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증과 병이 서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증과 병이 서로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하여 말하면 病이요, 나누어 말하면 症이다.” 159) <知病必先知症論> 中.

이렇게 病과 因, 그리고 症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감별하였다. 病과 因, 그리고 症이 감별되면 약을 처방하는데, 이때에는 처방의 정교함을 추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主方主藥論이다.

“한 가지 약에는 그 한 가지 약에 해당하는性情과 功效가 있으니, 그 약은 능히 某病을 치료할 수 있다.” 160) <藥石性同異論> 中.

“古方에서는 한 약으로 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여러 증상이 모여서 병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여러 약을 합하여 처방을 이루었다.” 161) <知病必先知症論> 中.

“고인의 치법은 단 한 가지 처방도 병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한 가지 약도 증상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모든 병에는 각각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각각에는 정해진 이름이 있으며, 각각 主治하는 처방이 있다.” 162) <藥誤不卽死論> 中.

“고인이 약을 사용하고 처방을 세울 때에는 먼저 병증을 나열한 후에 ‘某方이 그 병증을 主治한다’ 고 말하였다. 만약 그 증상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가감하는 방법을 처방의 뒤에 붙여 놓았으니, 처방 중의 약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과 모두 정확히 합치되어 한 가지 약재라도 헛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처방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것이다……. 총괄하면, 고방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病者가 앓고 있는 증상이 모두 고방의 앞에 열거되어 있는 증상과 合致하는가를 살피고, 다시 처방 중에 사용된 약이 단 하나라도 드러난 증상과 서로 합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살핀 연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가감해야 하고, 가감이 마땅하지 않다면 차라리 한 가지 처방을 택해야 할 것이다. 결코 길거리에서 ‘某方이 某病을 치료한다’ 고만 주어 듣고서, 그 원인의 다름과 증상의 출입을 논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치료해서는 안 될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비록 사용하는 바가 모두 고방에 근본 하였다 하더라도 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163) <執方治病論> 中.

병의 증상과 처방 속의 약물은 언제나 一對一 혹은 多對一의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이 낫지 않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더불어 원기가 손상되게 된다.

“세상에 똑같은 하나의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을 치료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으나 저 사람을 치료한 경우에는 효과가 없고, 또 어떤 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해가 있기도 하니 어찌된 것인가? 그것은 병은 같으나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두 일률적으로 치료하면 病情에 비록 적중되더라도 사람의 氣體에는 분명하게 상반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해 역시 상반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름을 세심하게 살핀 이후에 輕重, 緩急, 大小, 先後의 法에 따라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164) <病同人異論> 中.

156) 凡症之總者, 謂之病.

157) 凡人之所苦謂之病, 所以致此病者謂之因.

158) 症者, 病之發現者也.

159) 凡一病必有數症. 有病同症異者, 有症同病異者, 有症與病相因者, 有症與病不相因者. 蓋合之則曰病, 分之則曰症.

160) 一藥有一藥之性情功效, 其藥能治某病.

161) 古方以一藥治一症, 合數症而成病, 則合數藥而成方.

162) 古人治法, 無一方不對病, 無一藥不對症……. 各有數症, 各有定名, 各有主方.

163) 古人用藥立方, 先陳列病症, 然後云某方主之. 若其症少有出入, 則有加減之法, 附於方後. 可知方中之藥, 必與所現之症纖悉皆合, 無一味虛設, 乃用此方, 毫無融通也……. 總之, 欲用古方, 必先審病者所患之症, 悉與古方前所陳列之症皆合. 更檢方中所用之藥, 無一不與所現之症相合, 然後施用, 否則必須加減. 無可加減, 則另擇一方. 斷不可道聽塗說, 聞某方可以治某病, 不論其因之異同, 症之出入, 而冒昧施治. 雖所用悉本於古方, 而害益大矣.

164) 天下有同此一病, 而治此則效, 治彼則不效, 且不惟無效而反有大害者, 何也? 則以病同人異也……. 一概施治, 則病情雖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령태가 강조한 主方主藥論의 핵심은, 어떠한 증상이나 질환에는 오직 하나의 처방만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모든 병과 증상은 환자의 개인차, 病因, 發病環境에 따라서 모두 다른 것으로, 단지 ‘某方이 某病을 치료한다’고 하여 정확한 분석 없이 애매하게 투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병의 총체적 분석 및 인식, 그리고 약물 하나하나의 특성과 이를 조합한 처방의 완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 최종 목표는 원기의 보호이다. 主方主藥論이 古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처방이 정밀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즉 主方主藥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지극히 은밀하고 반드시 효과가 있는 처방이 아니라면, 몸으로 약을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약을 복용하지 않고 편하게 하는 것이 의료에 더 적합할 것이다.”¹⁶⁵⁾ <病有不服藥論> 中.

“한 가지 처방만을 고수하여 병을 치료한다면, 처방이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약 중에 한 두 가지 약은 병과 서로 관계되지 못할 것이니, 이런 경우는 ‘처방은 있지만 약은 없다’고 하는 경우이다.”¹⁶⁶⁾ <方藥離合論> 中.

처방이 정밀하지 못하면, 차라리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약은 上下品을 막론하고 모두 독약의 종류¹⁶⁷⁾이므로, 정밀하지 못한 투약은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서령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크게 비판했다. 趙獻可가 《醫貫》에서 命門相火만을 강조한 것이나, 李東垣이 《脾胃論》에서 脾胃升降만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비난의 대상이었다.

“각자 그 치우친 것만 내세우고 中道와는 맞

中, 而於人之氣體迥乎相反, 則利害亦相反矣. 故醫者必細審其人之種種不同, 而後輕重緩急大小先後之法因之而定.

165) 如無至穩必效之方, 不過以身試藥, 則寧以不服藥爲中醫矣.

166) 守一方以治病, 方雖良善, 而其藥有一二味與病不相關者, 謂之有方無藥.

167) ‘비록 감초나 인삼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해를 끼치게 되니, 이것들도 모두 독약의 종류인 것이다……. 약을 사용하는 것도 질병을 攻伐하기 위함이니, 역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경락을 분별하여 모호하게 사용하는 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雖甘草人蔘, 誤用致害, 皆毒藥之類也……. 藥之設也, 以攻疾, 亦不得已而後用……. 辨經絡而無泛用之藥. <用藥如用兵論> 中.

지 않았다. 그 편벽된 것으로 말하자면 李東垣이 가장 심했으니, 오직 溫燥之劑로 脾胃를 다스리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그의 처방은 역시 법도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¹⁶⁸⁾ <醫學淵源論> 中.

서령태가 李東垣을 비판한 것은 脾胃升降의 기능을 중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이론에만 치우쳐서 病의 총체적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됨을 경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면밀한 분석 끝에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투약 전후의 상황을 고찰하여 진단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治病의 법은 반드시 먼저 의안을 세우고, 어떠한 병이라 지적하면 어떠한 처방에 치료하는데, 처방 중에서 어떠한 약이 어떠한 증상을 전적으로 치료하고, 그 논설은 어떠한 책에서 근거 하며,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얼마나 지난 후에 그 병의 아픈 것이 줄어들어가는가를 살펴야 한다. 혹시 服藥한 효험이 없다면 반드시 효험이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하고, 다시 반드시 효과가 있을 처방을 생각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다른 효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하며, 또 다른 증상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병이 오히려 심해지면 반드시 그렇게 해를 준 까닭을 알아야 하니, 스스로 나무라고 懲戒한 후 다시 醫書를 널리 구하여 반드시 낫는 것을 기약해야 한다.”¹⁶⁹⁾ <治人必考其驗否論> 中.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某病에 某藥’이라는 논리로 약을 투여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마는 低次元의 의학이 아니라, 결과를 재 고찰하여 다음 치료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高次元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을 정확히 감별하여 辨證, 辨病이 완료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비록 病名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환자 개개인이 느끼는 증상은 모두 다르게 마련이고, 각기 다른 증상은 각기 다른 病이라는 것을 의미

168) 各任其偏, 而不歸于中道. 其尤偏駁者, 李東垣爲甚, 惟以溫燥脾胃爲主, 其方亦毫無法度.

169) 故治病之法, 必宜先立醫案, 指爲何病, 所本何方, 方中用某藥專治某症, 其論說本之何書. 服此藥後, 于何時減去所患之何症; 倘或不驗, 必求所以不驗之故, 而更思必效之法; 或所期之效不應, 反有他效, 必求其所以致他效之故, 又或反增他症, 或病反重, 則必求所以致害之故, 而自痛懲焉. 更復博故醫書, 期于必愈而止.

하므로, 각 환자에게 맞는 처방을 구성하여 투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복용의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하고, 반대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밀하게 치료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誤治가 있었다면 반드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다음 번 치료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通治方이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율은 높아지고, 환자의 원기를 더욱 굳건히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것이 서령태가 강조한 主方主藥論인데 一見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역으로 당시 의학계가 얼마나 既成 처방과 풍조에 젖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¹⁷⁰⁾. 그는 이러한 세태를 질타하고, 정확한 辨證辨病으로 정교한 진단과 치료를 추구하였으며, 이후 의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醫師로서의 마음가짐을 重視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첫째 덕목은, 무엇보다도 惻隱之心일 것이다.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의술이나 의학 이론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당연히 여기지만, 실제로 매 진료시마다 이를 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서령태는 의업을 행함에 있어 의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此라는 것은 機¹⁷¹⁾이다. 사람의 마음에 감응되어 통하지 않는 바가 없고 이미 성심으로 치료를 구한다면, 반드시 병을 치료하는 鬼神이 그것에 應할 것이다.”¹⁷²⁾ <虜方論> 中.

앞서 <病有鬼神論>篇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그는 鬼神에 감응된 것도 風寒暑濕邪와 같이 치료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학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귀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으니, 치료 과정이 비록 의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것이 진정 환자를 위한 마음이라면 효험을 볼 수 있으리라 믿었다¹⁷³⁾. 이것은 서령태의 논리성에 모순이라기보다는,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높은 치

료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짐승의 질병은 七情에 의한 경우는 적고 風寒, 飮食에 의한 경우는 많다. 그러므로 치법이 사람에게 비하면 오히려 쉽다……. 사람을 치료하듯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⁷⁴⁾ <獸醫論> 中.

여기에서는 獸醫가 가축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짐승을 치료할 때도 사람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짐승을 치료함에도 이렇듯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역시 의사는 진료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의사는 그 마음의 쓰임을 바르게 하면 비록 학식이 부족할지라도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하물며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학문이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학문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면 매번 치료할 때마다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명성이 날이 갈수록 드높아질 것이요, 따라서 자연히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많아져서 얻게 되는 이윤 역시 많아질 것이다. 만약 오로지 돈만 밝힌다면 반드시 명성과 돈 모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醫者들은 어찌하여 괴롭게도 이 좋은 것은 버리고 저 나쁜 것만을 답습하고 있는가?”¹⁷⁵⁾ <醫家論> 中.

“醫道를 익히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사람을 꿰뚫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능히 세속의 일을 물리쳐 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오직 수년간 전심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 더불어 스승에게 전수까지 받게 되면, 바야흐로 능히 옛 성인의 마음과 더불어 은연중에 서로 뜻이 통하게 될 것이다.”¹⁷⁶⁾ <醫非人人可學論> 中.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잡고 저울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 뛰어난 자질, 사람을 꿰

170) 明代 命門學說을 整理한 趙獻可의 《醫貫》 類의 저작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령태는 《醫貫疏》을 지어 구절마다 비판하였다.

171) 계기, 실마리, 조짐.

172) 夫此者, 機也. 人心之感召, 無所不通, 既成心於求治, 則必又能治病之鬼神應之.

173) 其外更有觸犯鬼神之神, 則祈禱加愈. <病有鬼神論> 中.

174) 禽獸之病, 由于七情者少, 由于風寒飮食者多, 故治法較之人爲猶易……. 不得盡以治人者治之矣.

175) 故醫者能正其心迹, 雖學不足, 猶不至於害人. 況果能虛心篤學, 則學日進, 學日進, 則每治必愈, 而聲名日起, 自然求之者衆, 而利亦隨之. 若專於求利, 則名利必兩失, 醫者何苦舍此而蹈彼也.

176) 故爲此道者, 必具過人之資, 通人之識, 于能屏去俗事, 專心數年, 更得師之傳授, 方能與古聖人之心, 潛通默契.

뚝는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에 매진하며 환자를 위한 바른 마음 씀씀이라고 하였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인삼을 가지고 기사회생하는 약이라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삼을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는 반드시 병이 순수한 허증에 속하는 것과 인삼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가를 살펴서, 복용에 반드시 만전을 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반드시 그 家業을 살펴서 인삼을 사용하여도 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와 인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사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살핀 후 적절히 사용하면, 한편으로는 재산을 아끼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집안을 보호해야 할 것이니, 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자연히 하늘이 福을 내릴 것이다.” 177) <人蔘論> 中.

서령태의 생존 당시에는 趙獻可의 《醫貫》 類의 사상이 의학계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환자나 의사 모두 인삼과 같은 補劑를 복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이런 세대가 질병 치료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행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환자의 사기가 제거되고 정기가 쇠약하다면 인삼을 사용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¹⁷⁸⁾’ 하겠지만, 인삼의 사용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삼을 사용하는 것은 진실로 誤治이고 그것만으로도 罪惡이라 생각했다. 이에 더하여, 가난한 사람이 인삼을 복용코자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관료들의 부패와 잇따른 수해,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이 계속되는 궁핍함 속에서, 값비싼 보제의 남용이 횡행하는 풍조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상당한 고충이었을 것이다. 이에 그는 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경제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령태는 어려서부터 여유롭게 자랐기 때문에 당시 가난했던 일반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런 그의 사고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환자를 공홀히 여기는 그의 기본 품성과, 유교적 교육에 바탕을 둔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여준 서령태의 의학 윤리관은 오늘날을

177) 吾願天下之人，斷不可以人蔘爲起死回生之藥而必服之。醫者必審其病，實係純虛，非蔘不治，服必萬全，然後用之。又必量其家業，尙可以支持，不至用蔘之後，死生無靠，然後節省用之。一以惜物力，一以全人之命，一以保人之家。如此存心，自然天降之福。

178) 病人如果邪去正衰，用之固宜。<人蔘論> 中。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하고, 매 진료 때 마다 최선을 다하며, 의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의학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의미 있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5) 多樣性을 認定하는 開放的인 思想

서령태는 復古主義者이었지만 옛 것만을 고집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다방면에 걸쳐 폭 넓은 사고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화는 한결같지 않으니 神明한 法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 179) <治病不必分經絡臟腑論> 中.

그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醫者意也’ 라는 말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단지 湯劑에만 그친다면, 역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없다. 대개 湯이라는 것은 蕩을 말하는 것이니, 그 行하는 것이 빠르고 그 質이 가벼우며 그 힘은 쉽게 지나가고 머무르지 않으니, 오직 병이 營衛와 腸胃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빠르지만, 그 나머지 병들은 丸劑나 散劑, 혹은 膏劑가 마땅하다. 그러므로 의사는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급히 사용할 때에 대응하여야 한다……. 지금의 의사는 단지 煎湯한 처방으로만 치료하고, 오직 병후의 조리에만 滋補하는 丸劑나 散劑를 사용하니, 성인의 좋은 방법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 된다. 곧 사용하는 약에 잘못이 없더라도 병과 더불어 서로 작용하지 못하니, 결국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180) <湯藥不足盡病論> 中.

질병 양상에 따라 제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이다. 한약 처방 시 선택되는 제형은 대부분 湯劑인데, 탕제만 가지고 모든 질환을 치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게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한의학이 보다 더 가깝게 다

179) 變化不一，神而明之，存乎其人也。

180) 以服藥論，止用湯劑，亦不能盡病。蓋湯者，蕩也，其行速，其質輕，其力易過而不留，惟病在榮衛腸胃者，其效更速。其餘諸病，有宜丸宜散宜膏者，必醫者豫備，以待一時急用……. 若今之醫者，只以一煎方爲治，惟病後調理則用滋補丸散，盡廢聖人之良法，即使藥不誤，而與病不相入，則終難取效。

가가기 위해서는 제형의 다변화가 선결되어야 함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한약 제형이 탕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그 내면에는 한약이 가지는 氣味와 寒熱의 개념으로 인해 제형 다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노력도 부족했음은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는 제형의 다양화를 주장했는데, 그 논리가 매우 진보적이며 능동적이라 할 수 있다. 치료를 제고를 위한 이런 노력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 여겨진다.

“原住民들은 모두 그 지역 병에 매우 효험이 있는 치료법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 마땅히 그 치료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능력만을 믿거나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한다면,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것이니 오히려 원주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181) <五方異治論> 中.

여기에서 서령태는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정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 분야, 혹은 진료 분야에 대해 늘 배우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서령태의 열린 마음가짐을 살펴보았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그는 평생 만 여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이를 통해 의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넓으면서도 깊은 지식은 法을 준수하면서도 그 법에 얽매이지 않아, 변화가 무궁하였고 치료에 한계가 없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孔子가 말한 ‘從心の 경지’ 182)가 아닐 수 없다.

6) 道家와 儒家 思想의 結合

서령태는 어려서부터 黃老의 사상에 심취했었으며 후일 《道德經注》와 《陰符經注》를 저술할 만큼 도가 사상에 대해 이해가 깊었다. 또한 그의 이름을 ‘大椿’이라 지은 祖父가 있었던 것처럼, 노장사상에 심취해 있던 집안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醫學源流論》 곳곳에서 서령태의 도가 사상을 읽을 수 있다.

181) 土人皆有極效之方, 皆宜詳審訪察. 若恃己之能, 執己之見, 治竟無功, 反爲土人所笑矣.

182) 70세가 되어 마음이 행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論語·爲政篇》.

“老子가 말하기를 ‘天은 道를 본받고, 道는 자연을 본받는다’ 고 하였으니, 자연의 道가 長生의 비결인 것이다.” 183) <腎藏精論> 中.

“약을 복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이한 질병이 생기는 것은, 싸워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이한 재앙이 생기는 것과 같다……. 약을 사용하는 것도 질병을 공벌하기 위함이니 역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184) <用藥如用兵論> 中.

道家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無爲¹⁸⁵⁾의 실현이다. 무위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의 삶 자체를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비록 한의학의 기본 원리가 어느 정도 도가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이처럼 《醫學源流論》 곳곳에서 한의학 기본 원리 이상이라 할 수 있는 서령태만의 뚜렷한 도가 사상을 읽을 수 있다. 《道德經注》, 《陰符經注》를 저술할 정도로 도가 사상에 해박했던 그의 학식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그의 사상 중에는 儒家의 사상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자연히 하늘에서 福이 내려올 것이다.” 186) <人參論> 中.

“대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수가 있으니 만약 반드시 사람이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는다면 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장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命은 權道가 없는 까닭에 반드시 질병이 생기게 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만든다. 그러나 질병의 경중이 모두 다 같지 않아서 혹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몸을 잘 보호하여 六淫 七情에 감촉되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가벼워 天命에는 마땅히 죽어야 할진대 병이 깊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며, 命은 또 權道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늘이 여러 등

183) 老子云: 天法道, 道法自然, 自然之道, 乃長生之訣也.

184) 好服食者, 必生奇疾, 猶之好戰勝者, 必有奇殃……. 藥之設也, 以攻疾, 亦不得已而後用.

185) 無爲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과장하지 않음을 뜻한다. 無爲는 억지로 하지 않고 인공의 힘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런 행위를 뜻한다. “완전한 행위란 그 뒤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모든 자연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것이 끼어들게 되면 그것은 항상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거나 실패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無爲 없이는 진정한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86) 如此存心, 自然天降之福.

급의 의사를 천하에 배포하였던 것이다.” 187) <醫者誤人無罪論> 中.

여기에서 天과 權의 존재에 대한 긍정은 서령태의 유가 사상에 대한 일면을 보여준다¹⁸⁸⁾. 그가 갖고 있는 유가적 사상의 근원은 그가 科擧를 위해 사서를 공부했다는 것과, 청대에 들어오면서 신유학을 官學으로 삼았던 국가 정책이나 경제치용의 물결 등을 통해 나타난 시대상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도가 사상보다는 유가 사상¹⁸⁹⁾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는 無爲와 자연을 긍정하면서도 뚜렷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천인합일의 차원에서 古法을 인용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의학을 단순 의료의 차원이 아니라 ‘救世의 큰 학문’이라는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실천적 자세를 보여주었고, 진료를 행함에 있어 사회,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고지신의

사상을 바탕으로, 古法을 추종하면서도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5. 고찰

清대의 모든 문화와 학술 그리고 사상적 동향은, 淸이라는 국가가 이민족이었던 滿洲族이 漢族을 정복하고 수립한 나라였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족의 입장에서 우수한 문화와 中華라는 자부심을 갖고도 피지배계층의 위치에 서게 됨으로서 자신들의 기존 사상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열등했던 만주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족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구하는 상황이 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상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한족은 기존의 사상에 일대 변혁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한족이 체제를 전복할까 두려워한 청조가 반청사상을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淸初의 모든 사상이 형성된다.

淸이 수립되기 전, 宋에서 明末까지 중국을 지배한 사상은 朱子學으로 대표되는 新儒學이었다. 신유학은 불교의 전래를 통해 사상적 위기감을 느낀 중국 철학계에서 반동으로 나온 사상으로, 형이상학을 추구하고 虛에 대항한 實을 주장하였다. 모든 사물에는 理가 있으며, 이 理는 사물의 궁극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新儒學者들은 理氣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유교를 형이상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격물치지의 학술 풍토가 형성되어 중국 과학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유학의 사상은, 明末에 이르러 독단적, 非世間的, 형이상학적 망상이라는 모순점을 드러내게 된다.

淸初의 사상계는 明의 멸망을 이룬 주자학의 모순에서 찾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理主氣從 체계에서 氣主理從 체계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理學 및 心學에서 氣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형이상학의 위치에서 형이하학의 위치로 내려온 철학은 실사구시의 학풍을 가져왔고, 의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제 병증의 현황을 중시한 변증시치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一理, 一心, 太極 등에서 기원하여 脾胃의 기능만을 부각시킨 元代의 의학이나, 命門의 기능을 강조한 明代의 의학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부분이다. 고전 연구에서도 이론 중심의 <內經>보다 실증을 중요시 한 <傷寒論> 위주의 의학이 성립되기에 이른다.

한편 淸朝는 한족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체제 전복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었는데, 학술적으로도 文字獄 등을 통해 반청 사상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학술계에서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기보다 기존 古書를 열

187) 蓋人生死有定數, 若必待人之老而自死, 則天下皆壽考之人而命無權, 故必生疾病, 使之不以壽而死. 然疾病之輕重不齊, 或其人善自保護, 則六淫七情之所感甚輕. 命本當死, 而病淺不能令其死, 則命又無權, 於是天生此等之醫, 分布於天下.

188) 공자는 하늘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하늘의 명령, 즉 뜻을 믿었다. 그러나 그의 하늘은 종전의 主宰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도덕의 초월적 표현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天命과 天道의 의미이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89) 유가 사상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人本主義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儒家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좋은 것(善)으로 보고 이것을 계발하는 이론을 정립해 왔다. 性惡說을 주장한 순자도 善人이 목표였고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人爲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본주의로 나아갔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와 인간중심적 사상은 유가의 본질이다. ② 천인합일의 一元的 사유를 기본으로 한다. 천인합일은 우주와 인간의 원리를 일관된 것으로 보는 것, 즉 이 둘을 유기적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잘못 이해하면 인간중심적 가치원리를 존재의 세계로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유가의 기본입장은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유가는 나와 다른 사람, 인간과 만물, 인간과 우주를 언제나 조화적 발전 단계로 보는 존재이해의 기본방식을 형성하였다. ③ 모든 문화현상을 실천적으로 다루는 실천철학의 성격을 띤다. 유가 사상은 문화철학·정치철학으로 여겨질 만큼 서양철학과는 달리 문화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실천적 관심을 보여 왔다. 이것은 문화가 인간의 산물이며 유가는 인간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계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④ 유가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창조를 조화 있게 이룩해 간 철학이다. 공자가 일찍이 온고지신을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역사나 문화의 전개가 克復的 革命的 革新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고, 언제나 인습과 창조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유행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요, 그 실천에 있으며, 이 진리의 체득과 실천은 물리적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의 반영이기도 하다. 즉 과거의 진리를 천명하고 실천한 哲人과 시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나 계승되어야 한다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람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가 되고, 여기에 실증주의적 經學의 조류가 합쳐져서 고증학이 출현하게 되었다. 의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復古主義 尊經學派의 대두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청대 의학의 전체적인 성격은 국정의학교과서인 《醫宗金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소위 錯簡重訂이라는 편찬 과정은 古書라고 하여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논리 준거로 가늠하여 재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령태는 이런 淸代의 학술 사상을 고스란히, 그것도 가장 뚜렷하게 체득, 실현시킨 의가였다. 그는 논리가 古法에 있지 않으면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의학 사상적 근원을 《內經》이나 《傷寒論》 등의 책에서 찾았다. 그러면서도 합리성을 추구하여 인습에 불과한 고법은 폐기하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 두었다. 더불어 그는 元氣를 중시하여 진료를 행함에 있어 원기의 여부를 가능하고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그의 생각은 원기 수호를 위한 정확한 질병 분석과 처방의 활용으로 이어져, 변증시치의 정립과 主方主藥論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당시 학자로서 필수적으로 익혔을 儒學과, 스스로 즐겨 읽었다는 道學의 사상이 결합된 사고방식을 보였는데, 그의 실천적이고 능동적이며 사회적인 논리를 고려하면 儒家思想에 보다 더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淸末에는 公羊學¹⁹⁰⁾이 중흥되고, 溫病學, 中體西用 등의 사상이 생겼는데, 이런 흐름은 그의 의학 사상과 연관성이 있다. 직면한 현실을 넘어서려는 고심으로, 기존 주체는 확립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 융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의 조합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자신만의 사상은 굳건히 지키고 부족한 것은 논리적으로 채우는, 바로 실리적인 태도인 것이다. 이런 사상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각종 한의학 논리와 술법들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되고, 오히려 많은 이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서령태가 제시한 의학 사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무엇으로 의료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0) 청대 말기에 새로이 발흥한 유학의 일파. 19세기 청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의 침략과 각처의 농민 반란으로 전체체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사상계의 주도적 경향은 고전의 주석과 훈고에 치우쳐 있어서 현실의 긴박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별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학문적 자세를 반성하고 현실 인식과 개혁의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공양학이다. 공양학의 명칭은 魯나라 연대기를 공자의 《春秋》에 대한 해석 중 《公羊傳》을 표준으로 삼은 데서 붙여졌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Ⅲ. 결론

이상에서 徐靈胎와 그의 대표 저작인 《醫學源流論》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서령태는 ‘康乾盛世’라 불리는 淸代 강희 32년(1693)에서 건륭 36년(1771)까지 활약한 醫家이다. 다방면에서 박학다식하여 알지 못하는 분야가 없었고, 각 분야에 걸쳐 저술이 상당히 많았다. 그의 저작으로는 《難經經釋》, 《神農本草經百種錄》, 《醫貫砭》, 《醫學源流論》, 《傷寒類方》, 《蘭臺軌范》, 《道德經注》, 《陰符經注》, 《涇溪道情》, 《樂府傳聲》, 《水利策稿》, 《恩紀略》 등이 유명하다.

2. 서령태는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尊經復古主義學派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자신만의 확고한 사상으로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학저작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그의 만년에 저술된 《醫學源流論》이다. 《醫學源流論》은 論書로서, 上·下 2卷에 經絡臟腑·脈·病·方藥·治法·書論·古今 등 7門, 99論이 수록되어 있다. 이 저작에 그의 모든 의학 사상이 뚜렷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3. 서령태는 古法을 중시하였다. 그는 《內經》과 《傷寒論》을 위시한 고법, 그 중에서도 仲景의 法을 특히 추종하였는데, 학문적 원류와 근거가 고법에 있지 않으면 불신하였고, 새로운 것에 대한 해석 역시 고법에 의하였다. 그러나 완고한 고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과감히 비판하였고, 반대로 후세의 저작이나 논리이지만 그 내용에 타당성이 충분하면 取하는 등, 맹목적 복고성향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고법을 매우 중시했으면서도 능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溫故知新 하는 사상을 가졌던 것이라 볼 수 있다.

4. 서령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元氣의 수호였다. 원기는 단전 혹은 명문에서 비롯하며, 五臟에서 發하고 五臟에서 推動되어 전신 각 부위의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된다. 결국 원기는 사람의 人性과 天命,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결정하고 그 盛衰存亡은 실제로 사람의 생로병사의 관건이 된다. 하지만 원기는 스스로 보존되지 않으므로, 시시각각 원기를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병을 진찰하고 생사를 결정할 때 원기의 존망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할 때에도 원기가 상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5. 서령태는 主方主藥을 강조하였다. 그는 病과 因, 그리고 症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감별하여, 각 환자에게 가장 정확한 처방을 구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病이란 病因과 病人, 그리고 病所와 나타나는 症에 따라 모두 다른 것으로,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고방에서 열거한 증상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한 후에 처방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원기를 보호하고 치료율 제고를 도모하였다.

6. 서령태는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중시하였다. 그는 진료에 앞서 惻隱之心을 가지고 환자를 긍휼히 여기며, 환자를 낫게 하겠다는 의사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보았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하고 진료를 할 때 마다 최선을 다하며 의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의학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의미 있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7. 서령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다방면에 걸쳐 폭 넓은 사고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만의 법이 확고하여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정체에서 벗어나 발전을 꾀함으로써 보다 높은 치료율을 이룰 수 있었다.

8. 서령태는 사상적으로 道家와 儒家의 사상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道家의 無爲에 대한 사상이나 儒家의 天權에 대한 사상이 이를 입증한다. 그 중에서도 그는 儒家의 사상에 보다 깊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뚜렷한 人本主義와 天人合一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총괄하면, 서령태는 溫故知新의 사상으로 古法을 추종하면서도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준 인물이었다. 그는 진료에 있어 元氣를 가장 중요시하여 主方主藥을 주창하였고, 의료를 개인의 치료 차원에서 사회적 치료 차원까지 끌어 올린 선각자였다.

IV. 참고문헌

1.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1999), 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1999),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3. 北京市衛生幹部進修學院中醫部(1988), 徐大椿醫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4.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제17기 졸업준비위원회 공역(1994), 國譯徐靈胎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5. 李樞(1986), 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6. 許浚(1986),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7. 김봉집 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12기 (1992), 原論必本,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8. 김완희(1993), 韓醫學原論, 서울; 성보사.
9. 김희영(1986), 이야기 중국사, 卷3, 서울; 청아출판사.
10. 裴沛然(1984),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1. 柏楊 著, 김영수 옮김(2005), 맨 얼굴의 중국사, 卷5, 서울; 창해.
12. 임계순(2000), 淸史-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신서원.
13. 趙雲田(1996), 中國社會通史·淸前期卷, 山西教育出版社.
14. 淸 永瑢 等 撰(1965),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出版.
15. 홍원식(1989),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6. 홍원식·윤창렬(2004), 新編中國醫學史, 대전; 주민출판사.
17. 姜判權(1997년 8월), 乾隆~道光時期(1736~1850) 江蘇省的 災害와 淸朝의 荒政, 중국사연구 제2집.
18. 최의권(1993), 淸代醫學의 性格과 學術的 動向에 관한 考察, 한국학회 논문집.
19. 최태희·윤창렬(2000년 10월), 徐大椿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臨床經驗과 醫論-醫案을 中心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 최태희·윤창렬(1999년 12월), 徐大椿의 生涯와 著書 및 醫學理論에 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찬실(1995), 中韓辭典,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2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http://www.encyber.com>).
23. 민중서림 편집부(2006), 엡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4. 민중서림편집국(1997),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25. 謝觀(2001),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6. 연세대학교 허사사전편찬실(2001), 虛詞大辭典, 서울; 정보사.
27. 李雲(1991), 中醫人名詞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28. 中國醫籍大辭典 編輯委員會(2002),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0. 漢語大辭典編輯委員會(2001),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